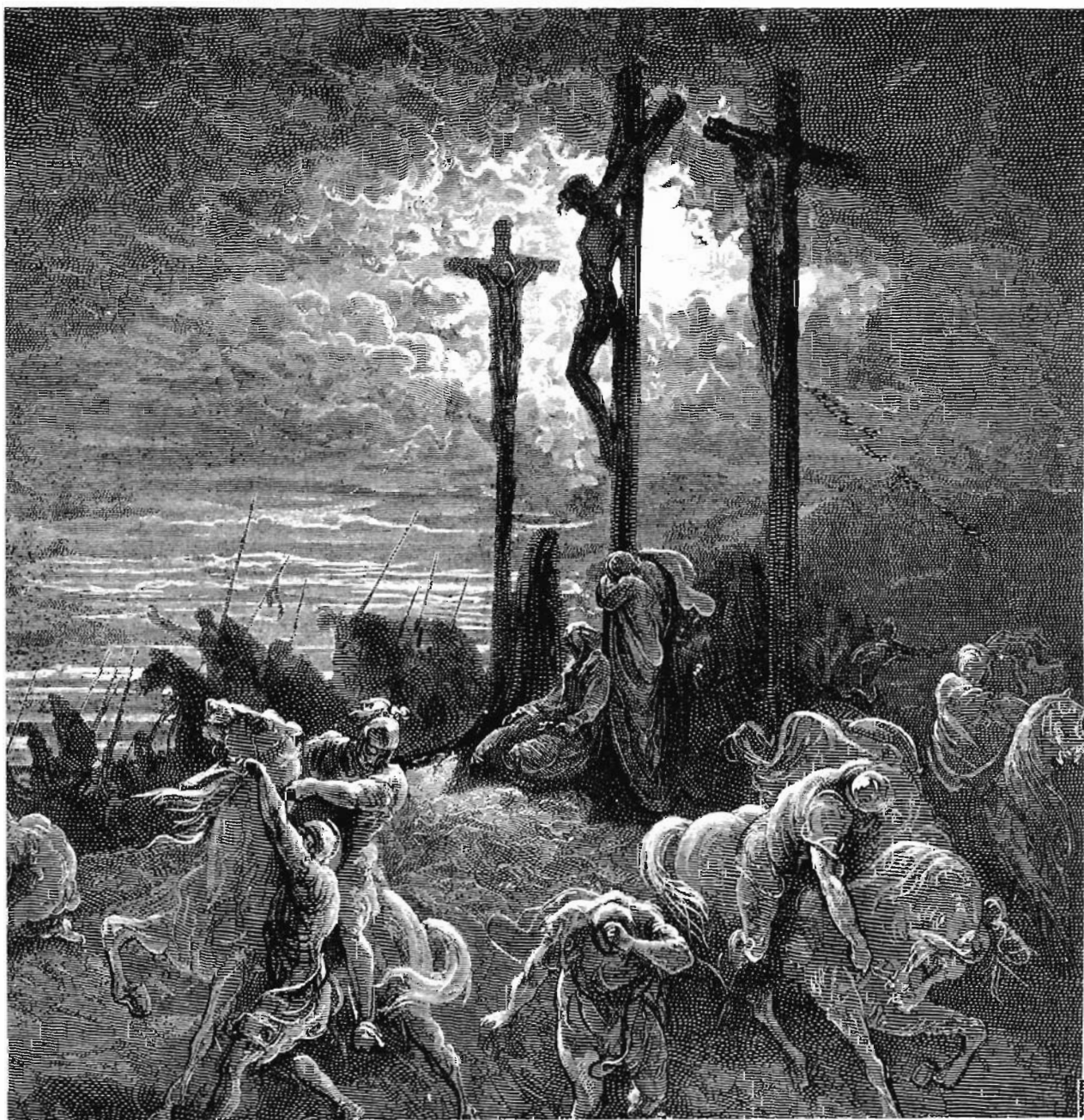


월간 **충** **현**

The Monthly Chung Hyeon

'81 **4** 월호



부활의 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정점이요, 은혜중의 은혜이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5가지 신앙을 고백한다. 동정녀 탄생, 십자가 상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심판)을 믿는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며,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도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도 헛것이요, 우리의 신앙도 헛것일 수밖에 없게 된다. (고전15:14).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바울과 여러 사도들은 시종일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강조하였으며,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과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의 선포가 그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의 핵심이요, 구원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만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니는 의미를 몇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한 증거가 된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대로(시16:10; 행 2:24~32),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예언하신대로(마16:21) 살아나신 것이다. 바울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되었다고 증거하였다(롬 1:4).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들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가지 면에서 증거하였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 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롬 5:10).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하심을 인하여 살아”나셨다. (롬 4:25)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과 같

이 그도 역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될 것이다(롬 6:4).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롬 8:1)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성도들의 부활의 보증이 되시기도 한다. 바울 사도는 “예수께서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증거하였다(고전15:20).

세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확증하는 증거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심판주로 세우신 것이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이다. (행17:31).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단순히 2,000여년전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만 믿어서는 안된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감격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죄의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장차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부활하신 주님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는 이토록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감격하면서, 이 부활의 소식을 말과 생활과 인격으로 증거해야 할 것이며, 장차있을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성결한 영적 신부로서 준비해야 할 것이다. (*) (주간)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충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 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하여 신앙 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제9권 제4호 통권87호

— 4 월호 차례 —

권 두 언 부활의 의미.....	주 간 · 2
이달의말씀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	김창인 · 4

월간 충현

* 특집 / 그리스도의 수난·죽음·부활 *

- 우리 삶에 미치는 그리스도 수난의 의미 김석원 · 6
- 우리 삶에 미치는 그리스도 죽음의 의미 김창근 · 8
- 우리 삶에 미치는 그리스도 부활의 의미 이승근 · 10

여 행 보 고 보다 나은 새성전 건축을 위하여.....	최 환 · 11
편집실칼럼 삶을 투자하는 지도자.....	오태용 · 16
찬송가감상 생명의 주여 면류관.....	김하진 · 16
책 정 보 3월중 들어 온 도서.....	도서실 · 17
책 소 개 점 손.....	김순애 · 17

* 특집 / 고 이명달전도사를 생각하며 *

- 특집화보..... 편집실 · 18
- 조사 / 엄위하신 모습이 눈에 선한데..... 구명신 · 18

칼빈주의 평신도를 위한 칼빈주의 해설 ⑤	김하진 · 20
독자의글 장로.....	조현명 · 22
새 교 우 새교우·결혼·별세자 명단.....	편집실 · 25
선교소식 해외선교사·선교지소식.....	해외복음선교회 · 26
교계소식 월간 교계 뉴우스.....	편집실 · 28
교회소식	편집실 · 29
화 보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편집실 · 35

표지설명 / 그리스도의 수난·죽음·부활의 절기를 맞으며 여러가지로 우리의 신앙자세를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매년 이때를 맞을 때마다 우린 어떤 모양으로 맞게 되는 지, 그 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우리의 삶과는.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

〈살전 5 : 1 - 11〉

김 창 인 목사

(본 교회 담회장)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인지 찾아 보면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의 목적대로 바로 살고 바로 일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목적이 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이 뚜렷합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 여행을 해야 그에게 발전이 있고 돌아온 다음에 효과가 있는 줄 압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도 공부하는 목적을, 배울 것을 배우고 알 것을 아는 실력자가 되어 사람의 책임을 담당하는 인격자가 되기 위하여 공부하는 높은 차원의 목적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목적이 분명하지 못합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은 정상적 발전을 할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형편 당해대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잘되면 교만하고 못되면 원망하며 나은 사람을 보면 시기하고 조금 억울하면 원망하며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엔 아무 것도 남기지 못한채 떠납니다. 우리 충현의 식구들은 이런 불행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생각과 말과 행함이 뒤따르는 열매 맺는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1)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게 하시기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놀라운 이적과 귀한 교훈을 많이 남기셨으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 만민을 위

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 목적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못하시면 많은 이적과 교훈, 수고들이 모두 헛것이 되고 맙니다.

충현의 식구들이여, 여러분들이 사는 목적, 일하는 목적, 무엇이거나 나를 위하여 개인을 위하여 양심의 등불을 꺼 버리는 욕심에 젖지 맙시다. 우리의 목적이 내 욕심을 채우려는 그 차원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높은 차원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첫째 목적입니다.

2)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격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고 세상 떠나는 때에 예수님 계신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과 함께 사는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하셔서 하늘나라 시민이 된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기로, 일하기로 결심합니다.

3.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1)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감사 찬송하는 생활,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면 유혹을 이기며 부모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으로 인해 근심해 하실까 보아 조심하는 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민주주의를 심은 지 수백년된 선진 민주주의 나라의 사람만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불평보다 공산세계에서보다 자유를 많이 누리는 것을 감사할 줄 압시다. 국민소득이 이만



큼 높아진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적으로 받은 복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 다음에 원망없는 감사, 분쟁없는 화목, 감사 속에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충성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범사에 감사하는 충성된 일군이 됩시다.

2) 조심하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과 우선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말이 달라진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말에 저주가 없어져야 합니다. 나의 자식에게, 나와 관계있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원수에게까지도 저주가 없어져야 합니다. 원수에게 저주하기 전에 눈물로 기도해 주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신자의 생활입니다.

일을 조심합니다. 조금 이익이 생긴다 하여 악한 일 하지 말고 오늘에 즐겁다고 악한 일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선한 일, 육신에 이익되는 선한 일, 남의 영혼에 빛을 비추이는 선한 일에 힘씁시다.

사람을 사귀는 일에 조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사는 한 식구가 되는 복을 받은 우리들은 첫째 감사, 둘째 조심하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3)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 하시니

그 나라 가까이 지는

늘 보호 하시네」

진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하는 순종,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으로 복종하는 헌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바른 목적이 있고 사는 사람은 성공을 하는데 육신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은 육신이 죽는 날 그 목적도 썩어집니다. 내 육신에 목적을 두고 악을 행한 사람은 육신이 죽는 날 하나님 앞에서 벌 받는다. 자신에게는 무서운 재앙이요 후손에게는 저주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높일 목적으로 살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천국에 마음을 두고 살고 세상 이별하면 하나님 앞에 상급있고 후손에게 복을 물려 줄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다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예수님, 나와 여러분을 천국의 영생 복락 누리도록 하시려고 죽으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앞으로 사는 날은 하나님 뜻대로 삼습니다. 감사하면서, 조심하면서, 순종하면서, 헌신하고 밤이 오기 전에 기회 놓치지 않고 일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올바르게 일하고 올바르게 살아서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 사회가 복을 받고 이 민족, 후손이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라디오방송설교안내

—음파를 타고 가는 복음—

김창인목사 설교

• 아세아방송 (1566KHz)

매 주일 오후 7 : 15

(본 교회 3부에배신황)

• 기독교방송 (837KHz)

매 주일 오후 9 : 40

매 주일 오후 11 : 30

우리 삶에 미치는 죽음의 의미



우리 옛사람의 죽음

김 창 군 목사

(부목사 · 세례부지도)

사람이 사는 인생 중에서 가장 무섭고 비참한 일은 무엇일까? 두 말 할 것도 없이 “죽음”이리라. 그 가운데서도 장수하면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는 죽음이 아니라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가장 비참한 처형 방법인 십자가에 못박혀 죽는 죽음…….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고 무서운 일이다.

그런데 이토록 무섭고 비참한 죽음을 위해서 이땅에 오신 분이 있으시니 그 분이 바로 우리를 죄악의 저주와 형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시다.

사람의 죽음을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성도의 죽음으로서 나그네 생활의 고생과 수고를 그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안식을 위한 인생의 성화(聖化)과정의 마지막 단계를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둘째는, 불신자의 죽음으로서 자기의 죄값으로 인한 심판의 죽음인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와같은 보통 인간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인해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죄인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代贖)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손과 발에는 못을 박히우고 열구리에는 창에 찔리시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귀한 생명을 버려 주셨으니 우리 주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구원의 최고 절정이요, 우리 성도의 감사 생활의 가장 귀한 원인이 아니겠는가?

고난주간 부활절을 또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나”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버려주신 주님의 죽음의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생활이 있기를 바란다.

1. 예수님의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다.

근대주의(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육체 부활의 사실을 부인하려고 죽음까지 부인하여 하는 말이 예수님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닌 기절 상태에서 회생

하였다는 소위 “기절설”을 제창하고 있으나 성경은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사망을 명백히 증거하고 있다. 특히 그의 죽음의 광경을 묘사한 복음서에는 로마병정이 창으로 그의 열구리를 찔러 죽음을 재확인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19:34) 이는 그 죽음의 진실성을 확실히 변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낮아지심(卑下)의 최고 절정이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란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 자신이 신적 위엄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태로 인성(人性) 즉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자체가 벌써 낮아지심이지만 그 가운데도 로마 법정의 선고를 받아 가장 비열한 죄수와 인간의 찌꺼기로 간주되어 극히 불명예스럽고 치욕적인 사형 방법이요, 법률의 극단 명령으로 처형하는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어 땅속에 묻히신 것은 주님으로서는 극단의 낮아지신 자리에 떨어지신 절정인 것이다. 이것은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데 곧 우리의 죄값이 이토록 저주 받아야 할 비참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죽음이다.

“죄의 삯은 사망”(롬 6:23)이라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 그 어느 누가 피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최고 율법의 수여자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와 저주를 완전히 담당하시기 위해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므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것이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8)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롬 5:19)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갈3:13)

이제 우리는 주님이 이루어 주신 율법의 완전한 순종의 보상으로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율법에서 해방되어 외롭다함을 얻게 될 것이다.

4. 그리스도의 죽음은 영광스런 부활의 원인이 된다.

세계 역사속에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사건을 든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영광스런 부활의 배후에는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시어 치욕의 죽음을 당하신 저주의 죽음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와같은 순종과 치욕의 죽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높이 드시어 죽음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영광을 안겨주신 것이다. 이는 마치 캄캄한 어두움의 밤이 있었기에 밝은 태양이 빛나는 아침이 더욱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과 같은 이치가 되는 것이다.

5.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우리의 옛 사람의 죽음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갈 2:20).

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롬 6:11)

②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갈 6:14)

③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롬 7:4)

이제 우리는 죄에서 해방 되었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아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는 새사람을 입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고전12:13), 둘 감람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었으니(롬11:17) 그러므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8:38, 39).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섭고 두렵고 비참한 죽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얻은 것이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할렐루야의 영광을 날 위해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께 드리자. (*)



나의 구속자 살아 계심을 나는 알도다

구주께서 사셨다가 죽으신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그들은 물었다오.....
또한 주님 못박히셨다는
그 이야기길 믿느냐고
눈에 비치든 곳
어디에나 있는 대답
그분의 거룩한 존재를 드러낼
무수한 대답을 나는 안다오.....
가을에 떨어져서
흙 속에 묻혔다가
이제 나뭇가지에 움 돌아
하나님께서 필 벌리는 잎새들.....
눈으로 덮여
굳게 파묻혔다가
그 어둠을 뚫고 나와
봄에게 안녕하고 인사하는 꽃들.....
곳곳마다 광활한 온 누리가
부활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준다오~
그러니 나는 누구에게 물으랴
그 부활의 영광을. <렐렌 스타이나 라이스>

우리의 삶 속에 미치는 수난의 의미

수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획



김 석 원 목사

(부목사 · 학습부지도)

봄이 오는 길목에서 우리는 사순절의 절기를 맞는다. 그리고 그 마지막 주간에는 고난주간을 맞는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주간을 맞을 때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 때문에 필자는 예수님의 고난의 역사적 의미를 고찰하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 대한 자세를 살펴 보고자 하는 것이다.

1.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주는 역사적 의미

1)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소란하게 된 예루살렘과 헤롯왕의 횡포 때문에 무참히 희생된 어린이들의 사건이 있다(마 2:13-18).

2) 예수님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가시지 못하고 헤롯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는 사건이 있다.(눅 4:16-30).

3) 예수님이 팔리시는 사건이 있다(마 26:14-16)

4) 고난의 떡과 고난의 잔을 피할 수 없었던 “나를 기념하라”하신 사건이 있다(눅 22:14-23).

5) 힘쓰고 애써 땀이 땅에 떨어질때 땀방울같이 땀만큼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의 「겟세마네 고통」의 사건이 있다(눅 22:39-46).

6) 불의한 자들에게 결박 당하시는 사건이 있다.(요 18:1-14).

7) 죄인들이 정죄하고 의인이 처형 당하는 모순당어리 공회 앞에 서신 사건이 있다(마 26:57-60).

8) 역사에서 가장 비양심적인 「빌라도 재판」의 사건이 있다(요 18:28-38).

9) 십자가에서 무죄자로서 대속자의 죽음을 죽으신 고난의 사건이 있다(마 27:32-56).

이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은 수난자의 일생임을 증언해 주고 있다. 한결을 더 나아가 수난자의 증언 배후에는 언제나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인용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수의 피난에 대해서(호 11:1), 무죄한 어린이 학살에 대해서(렐31:15), 팔리우신 예수님에 대해서(시41:9), 결박 당하시고 공회 앞에 서신 일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에 대해서(사53:)도 보여지고 있다. 특히 예언의 말씀의 끝맺음을 주의 해 보면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니라」란 귀절은 수난의 의미가 우리의 삶에 부여하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은 한 사건씩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고 건설되어 간다는 의미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의 수난을 통해서 인간의 삶 속에 부여하는 의미를 세가지로 정리해 본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진히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시고 고난의 인간역사 속에 들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은 진히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고난의 인간역사 속에서 삶의 승리를 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 머물러 계신다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은 고난인 인간역사 속에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 이외의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2.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현대 그리스도인의 자세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역사적이고도 절정한 의미에서의 고난을 피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수난의 증언자로 자신 생을 부인하려는 것과 같고, 그나마신 고난의 잔을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것

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일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 생애 시작부터 십자가상의 죽음시까지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이어지는 고난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고난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성장했고, 고난을 통해서 더욱 확산되어 왔다. 그리고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끝나는 날은 세상의 종말일지도 모른다. 한국 교회의 역사도 천주교까지 합친 삼백년의 교회사를 보면 고난의 역사가 계속 되었다. 봉건왕조의 황폐와 일제의 탄압과 공산당들의 총부리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야만 했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는 그때마다 더욱 단련된 쇠붙이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이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이 고난 속에서 이룩하려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한없는 축복으로 채워 주셨다. 그래서 교회는 날로 번창해 가고 있다. 그러나 고난을 모르는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다.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교회는 비록 외형이 확대되어 간다고 해도 내용은 날로 위축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오늘 한국 교회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을 사랑하려는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경향이 보이려 한다. 고난을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너무 쉽게 수용하려고 하고 있다. 고난은 부활로 통하는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없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려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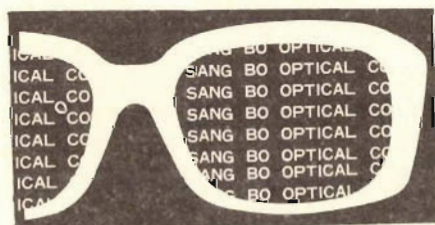
인 십자가를 금으로 만들어 가슴에 붙이고 다닐 줄은 알라도 그 십자가의 의미에는 무관심해져만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고난에서 신앙이 생기고 안락에서 신앙은 타락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고난을 모르고 고난을 피하는 사람은 주님의 부활과 상관이 없다.

고난을 모르고 그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지 않으려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찬이 아닐 지도 모른다. 고난 주간에 우리는 고난의 잔을 앞에 놓고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음미해보는 경건한 자세를 지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한다.

— 결 론 —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개인적으로 수난의 삶을 살으셨다. 그의 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약속대로 성취되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와 함께하므로 승리의 삶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의 수난의 역사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로 보아야 하겠다.

우리는 사회적, 개인적, 종교적으로 수난의 역사속에 있다. 그러므로 고난을 피하는 어리석음보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활의 승리로 연결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승리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삶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고난의 잔에 동참하므로, 그 참된 의미를 찾아 보았으면 한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는 말이 다시 새롭다. (No Cross, No Crown).



상 보 안 경 원

운영자 갈 형 석

1. 각 안과 의원처방을 정확하고 신용있게 만듭니다.
1. 고굴절 렌즈로써 고도의 기술로써 봉사합니다.
1. 경주남석, 전문취금업소로써 보증판매합니다.

명보극장배거리 常寶眼鏡院 267-0946

우리 삶에 미치는 부활의 의미



우리 삶에 생기를

이 승 근 목사

〈부목사 · 청년부지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시기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인간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으셨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회나 교회에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은 주님의 부활이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바로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생각해 보자.

1. 거듭나게 해 주셨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벧전 1:3)

죄인인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양의 대속이 필연적으로 요청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 그리고 이 구원의 성업을 완성하고 확증한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인 것이다. 만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그는 일개의 위대한 종교가일 수는 있었겠지만은 죄인의 구주가 되기에 부족했을 것이며 죄인인 인간이 그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다.

2. 새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롬 6:4)

거듭난다고 함은 영혼의 현주소가 옮겨지는 것을 말한다. 즉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로, 마귀의 종 노릇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것이다.

엘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처럼 주님의 부활은 인생길에 전환점이 된다. 따라서 썩어져 가는 옛 구습을 버리게 되고 새생명 가운데서 살게 된다.

3.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해 주셨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롬 8:11)

인간은 유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다. 그러나 이토록 고귀한 인간의 수명이 너무 짧다는 사실에 어느 누구도 불만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시90:3, 4)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이 있음을 실증해 주셨고 부활 후 전개 될 영원한 세계에 대해 분명히 알려 주셨다. 마치 번데기가 나비되듯 불완전하던 육체가 완전한 육체로 변화될 것을 사도바울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 주셨다. (빌 3:21; 고전 15:52)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내적 갈등과 외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장례식때에 고인의 시신 앞에서 유족들이 위로 받는 것은 오직 부활의 주님이 제심과 부활의 약속 뿐이다.

4.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 주셨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고전15:58)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의 수고와 주님을 믿고난 후에 주님위한 수고는 근본이 다르고 결과도 다르다. BC의 인생은 자아중심적이며, 현세적이지만 AD의 인생은 하나님 중심적이며, 영원을 살기 때문이다.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는 주님 부활뒤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 정말 주를 위한 일사각오의 모습들은 죽음 이전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가진 자의 모습들이었다.

메마른 가지에 봄 기운을 불어 넣어 가지마다 물기가 흐르고 새 움이 돌아나게 하듯 주님의 부활은 삭막한 인간의 심령속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신 날로부터 역사는 전환되었다. 죽음에 대한 이해도 바뀌어졌고 삶에 대한 의미도 새로워졌다. 나에게 있어서 주님의 부활은 순간에서 영원으로, BC에서 AD로의 전환점이 되었다.

보다 나은 새성전 건축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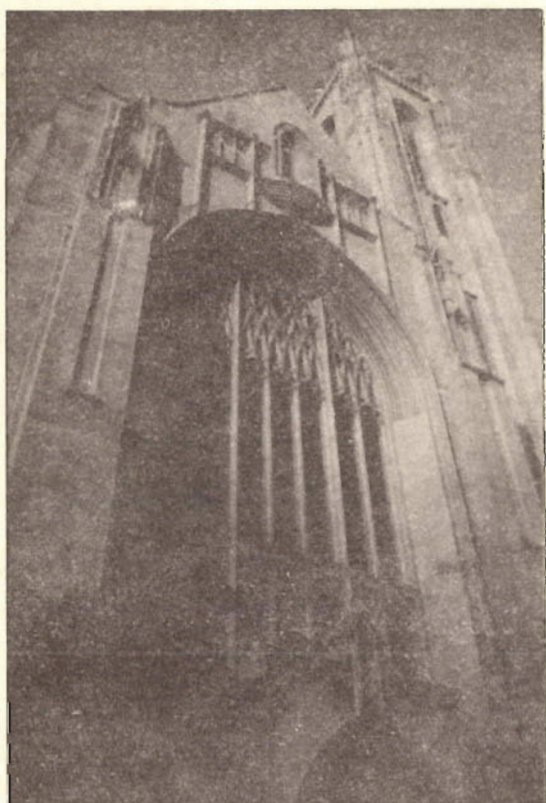
최 환 집사
(새성전건축현장감독)

허리우드 교회(The United Methodist Church)에 대해서 몇가지를 더 소개하면 외관은 복잡하지도 않으면서 일종의 단조로운 분위기에 아담하고 오목조목한 것이 특징이라고나 할까..., 종탑 모양도 꽤 짜임새가 있어 보였다. 그러니까 출입구로부터 전면모양, 종탑모양에 이르기까지 짜임새가 있었다. 건축한 지 50여년이 지났다고 하는데 교회 내·외부를 단장을 해 놓아서 그런지 완공한지 1년도 채 못 되는 건물 같았다. 고딕을 이루는 아치모양의 창문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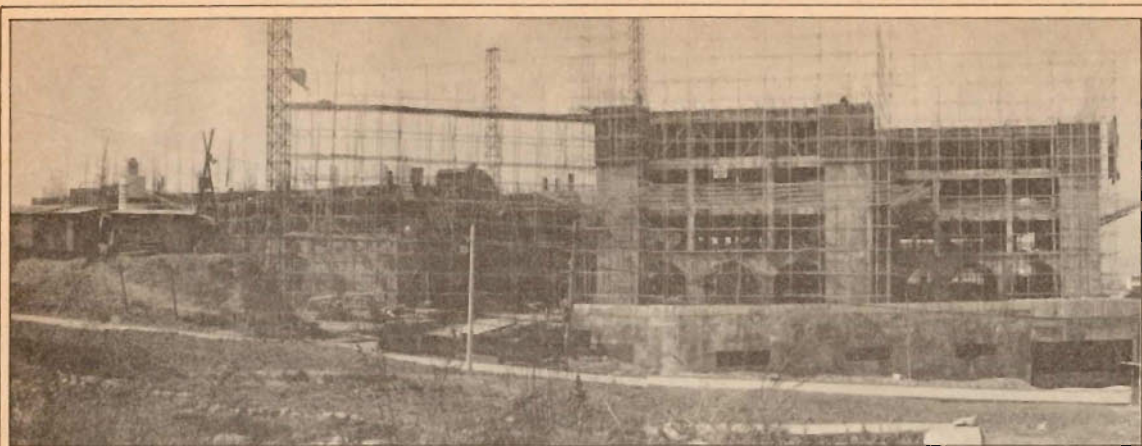
간살이나 아치 루버(Lonver)가 콘크리트를 부어서 만들었는데도, 형틀을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꼭 철재로 조각한 것 같이 정교해 보였다. 아 물론 이러한 것들이 대단한 기술의 뒷받침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었다.

로스엔젤레스에는 여러 명물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교회도 몇몇이 있지만 우리가 돌아보지 못한 곳들도 몇군데 있다.

허리우드 영화촬영소나, 디즈니랜드 등등 유명한 곳도 많지만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LA에 가신다고 하면 만일 바빠서 유명한 관광명소는 못 가본다 하더라도 특별히 권장하고 싶은 것은 허리우드에서 자동차를 타고 약 15분도 채 멀어지지 않은 곳으로 예수님이 갈보리산 끌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상상도와 부활 후의 장면과 재림 때의 상상도를 폭이 약 30m가 넘고 높이가 5~6m 정도인 그림을 위해서 건축한 기념관을 소개하고 싶다. 이것을 소개한 곳은 영어로 Forest Lawn Serves the Living이라고 쓰여 있었고 이 그림은 "패드르스키(Paderewski)라는 음악가(지휘자)의 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부활 때와 앞으로 재림 때의 장면이 너무도 생생하게 나타나기에 미술가인 얀스티카(Janstyka)라는 사람에게 일러주면서 그린 그림이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나 사람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이 표현되어 있었다. 또한 이 그림을 소개하는데 약 30분간 그림설명을 하면서 효과음악을 가미해서 소개하는 것이 상당한 은혜와 감명을 줄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었다. 여행 6일째 되는 날은 미국의 날자로 1월 11일 주일날이기 때문에 라성 빌라델비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우리 충현교회에서 시무하시던 장로님들과 집사님들도 상당히 많이 계셔서 충현교회 안부와 서로의 일사를 나누면서 그곳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허리우드교회 전면〉



〈4 월현재 새성전공사진행과정 (우측은 교육관)〉

감사했다.

여행 7 일째 되는 날 우리 일행은 웨스트민스터 (Westminster) 교회가 있는 그곳까지 가기로 하여 이곳 저곳을 물어서 그곳까지 찾아가게 되었다.

그 교회가 있는 도시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읍과 같이 자그마한 도시인데 아주 깨끗하고 조용해서 교육도시로서는 적당한 도시였으며 LA 시내에서 동북쪽으로 약 1 시간 (승용차로) 거리인 곳이다.

이 교회 이름은 웨스트민스터 장로교회 (Westminster Presbyterian Church of Pasadena)로 주소는 1757 North Lake Avenu이다.

이 교회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있는 교회인데 역시 교회내부도 그리 크지 않았으며 (약 1200여명 정도) 외모는 고딕식이 좀 발달한 모양을 이루고 있었고 교회도 교회이지만 교육관 시설이 잘 되어 있었다.

이름은 Yang Guard라고 되어 있었고 어떤 방에 들어가보니 그곳에는 실내농구장도 (지하실) 마련이 되어 있고 이곳 건물에서 특히 할 만한 것은 문의 손잡이었다.

사람이 많이 수용되는 방에는 이런 것을 수입해서라도 사용했으면 하고 느꼈다. 그 이름은 페닉바 (Penic Bar)라는 손잡이 이다.

우리를 안내한 분은 1943년에 한국의 부산에서 군대 통신병으로 일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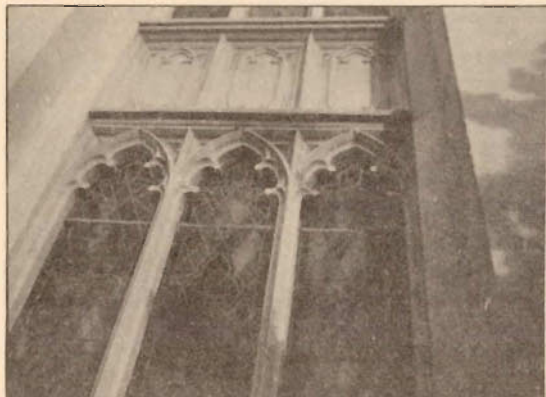
교회는 주위가 꽤 넓는데 전체가 잔디를 심어서 참으로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다.

8 일째 되는 날 우리 일행은 일정에는 샌디아고로 되어 있었으나 시카고로 가기로 결정하고 시카고로 향했는데 비행기로 6~7 시간을 가는 것 같았다.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비행기로 1 시간이 걸리는 것을 생각할 때 미국의 땅은 한 없이 넓다는 것을 느꼈다. 시카고 공항에 도착하니 그곳에는 오진국

장로님 친구의 처남되는 정동수씨라는 분이 대기하고 있었다. 짐 찾는 곳도 그분이 안내하여 주었기 때문에 참 편리하게 공항에서 나올 수 있었다. 호텔도 그분이 다 편리하게 안내를 해 주었다.

9 일째 되는 날은 1월 14일인데 시카고의 아침 날씨는 영하 3~5℃였다. 우리 일행이 시카고에 도착하기 이틀전까지만 해도 바람이 불고 눈이 오고 날씨도 매우 싸늘했는데 어저께부터 풀렸다고 한다.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데는 일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살피 주시는 것 같았다. 오늘의 계획은 일본의 미노루야마사끼가 설계한 노스쇼어 유대교 (North Shore Congregation Israel) 와 중심가 (Down town)에 있는 무디교회에 갈 것을 결정하고 먼저 노스쇼어 유대교로 향했다.

이 건물을 설계한 미노루 야마사끼 (M. Yamasaki: 小川正)는 세계적인 건축가로서 특히 미국에 건축한 대학건물, 사무실건물, 공항들을 설계한 건축가로서 그의 건축적인 사상은 투철하다고 보겠다. 이 교회의 위치는 일리노이스 그랜코 (1185 Sherida Road - G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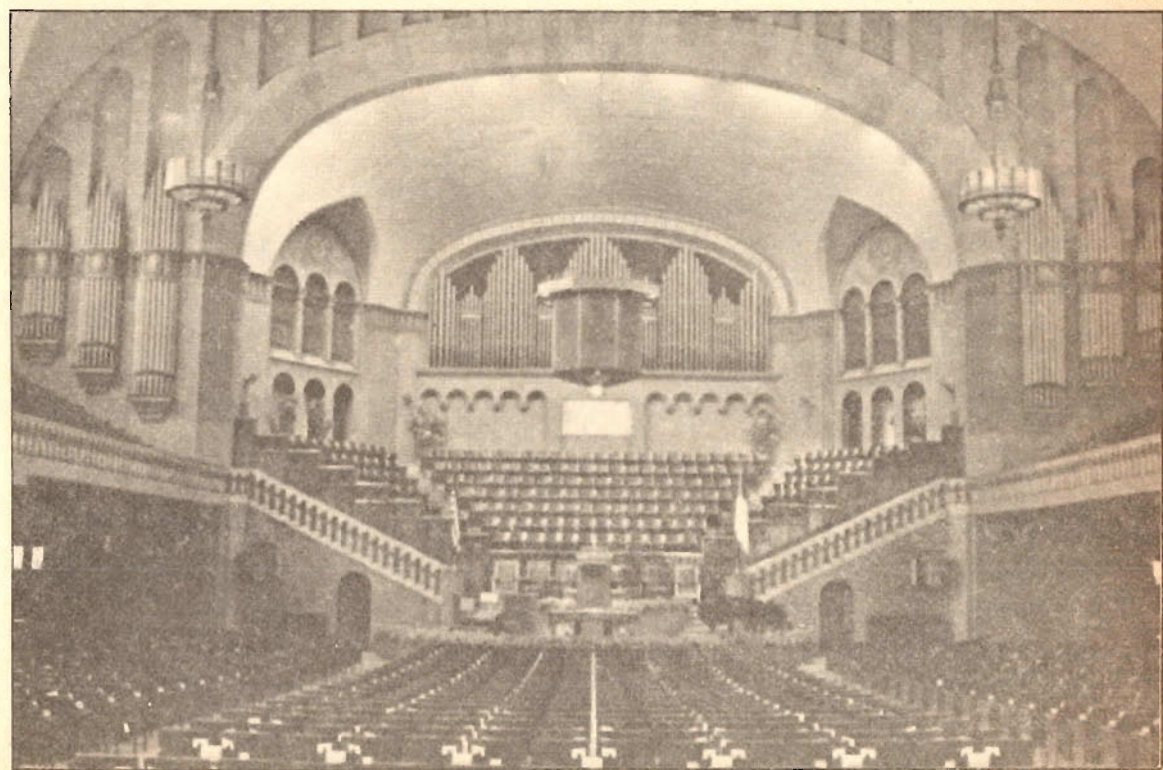


〈허리우드교회 창문부문을 콘크리트로 처리했는데 조각한 것 같다〉



〈무디교회 모형도〉

〈무디교회 내부〉



encofi Illinois)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로 미시간 호수 옆에 그 호수와 조화를 맞추어서 설계했으며 지붕은 천창을 둔(Sanctuary)지붕을 구성하였고, 지붕과 창문을 구성한 펜볼트(Pen Vault)는 고딕에서 변화를 주어서 내부에 연결을 시키면서 장식적인 효과까지 노렸다.

이 펜볼트 사이에 착색된 유리의 스카이라이트(천창: Sky Light)로 주간에는 태양광선에 의하고 야간에는 인공조명에 의해서 백색으로 달인 교회내부의 오묘한 조명 효과를 노린 것이 특색이라고 보겠다. 내부에서 외부창을 바라보든지 외부에서 내부쪽으로 바라보든지 그 모양은 양손을 합장한 모양으로 아담하게 표현했으며 밖이 내다보이도록 투명유리를 끼웠고 평면 계획상으로 신자들의 출석오차를 맞추기 위하여 객석의 양쪽 바닥을 보조용석으로 한단 높이로 또 로비를 메모리얼 홀로서 충분히 넓게 만들어 평상시엔 800~1000석을 고려하고 특별한 경우는 1800석 이상을 수용할 수 있게 본당과 중앙로비 사이의 칸막이를 이동식 칸막이로 설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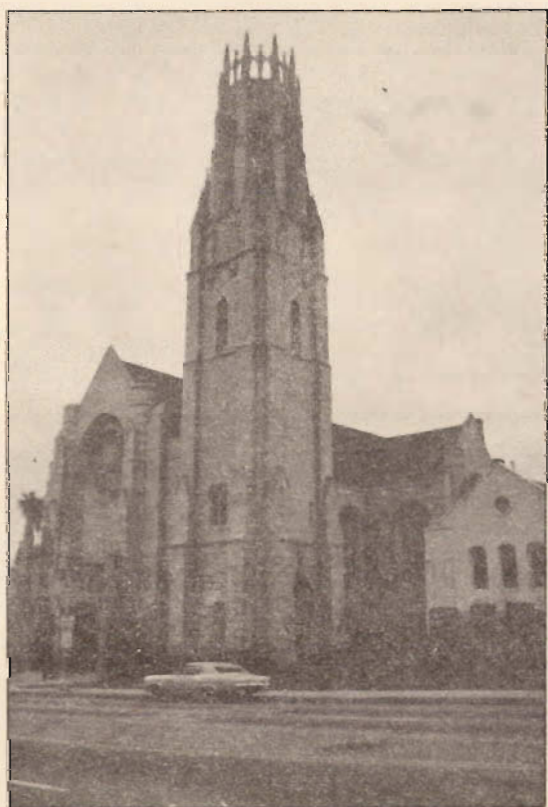
외부로 통하는 문의 장식은 특수한 정점으로 웨스트민스터교회 교육관에 설치한 페닉바(Penic bar)를 붙였으며 실내음향의 스피커는 1 포인트법으로 중앙에 큰 스피커 1 개로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설계했으며 내부의 앞 강대 벽에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을 돌에 새겨서 붙였으며 정중앙에는 지성소를 모양있게 디자인해서 설치했다. 물론 뒷부분에는 파이프 울겐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보아온 미국인 교회에는 크고 작은 교회를 막론하고 다 파이프울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나는 의문이 생겼다. 왜냐하면 생종문화회관만 해도 온도와 습도에 의해서 매우 관리상으로 까다로운데 왜 커튼으로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도 특별히 보호장치를 안했을까 하고 가서 보니 파이프 한개 한개가 거의가 목관(나무로 만든 피리모양의 파이프)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온도와 습도에는 그리 큰 문제거리가 아닌 듯싶었다. 이 모양이나 모든 것을 설명하기엔 너무나도 장구한 설명이므로 이만 줄이고자 한다.

이곳에서 다시 시카고의 다운타운으로 향했다. 어제 전화상으로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 둘째아들인 김성관 집사와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있는 빌딩으로 찾아갔다. 시카고 다운타운(시내 중심가)에는 50층, 60층되는 건물들이 많이 있었다. 김성관 집사는 그 회사의 부사장직에 있다고 하는데 그 많은 미국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부사장이면 얼마나 똑똑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지는 상상할 만 했다. 회사이름은 American Saving & Accounting Supply Inc.인데 부사장을 면회하자고 하니까 여비서가 나와서 안내를 하기에 쉽게 면회할 수가 있었다. 점심때가 되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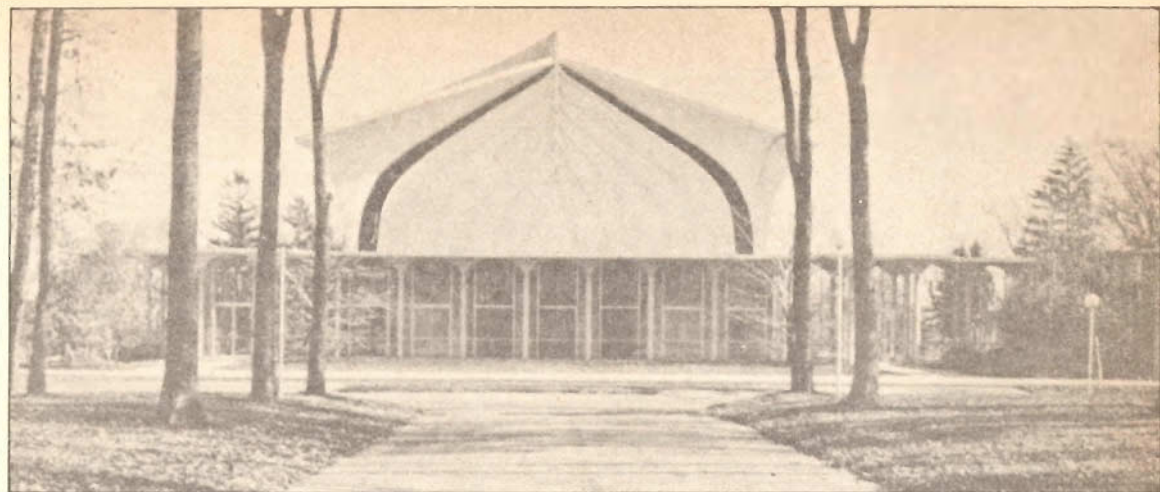
김성관 집사는 우리를 고급 요리집으로 안내하여 일류 요리를 대접받고 서울의 안부와 교회의 안부에 대해서 서로 인사교화를 한 다음에 우리는 또 발걸음을 무디교회 쪽으로 옮겼다.

먼저 찾아 간 곳은 무디 신학대학이 있는 곳이었다. 1 개 부락 전체에 그 건물들이 있는데 내부에 들어가니 굉장히 넓었다. 그곳의 이름은 무디 인스티튜트(Moody Institute)로서, 무디선생의 업적과 세계 선교본부가 있는 건물로 선교용 라디오 방송국, 신학교, 기숙사, 학교 예배실이 있는데 이곳이 3,600명이 수용되는 대강당이였다. 이곳을 찾아오는 여러 방문객들을 위한 무디재단을 소개하는 작은 홀이 있는데 이곳은 약 200여명 정도가 시청할 수 있는 환등시설이 되어 있어서 한개의 스위치만 누르면 무디선생의 선교업적과 무디재단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걸어서 10분도 채 못되는 거리에 무디교회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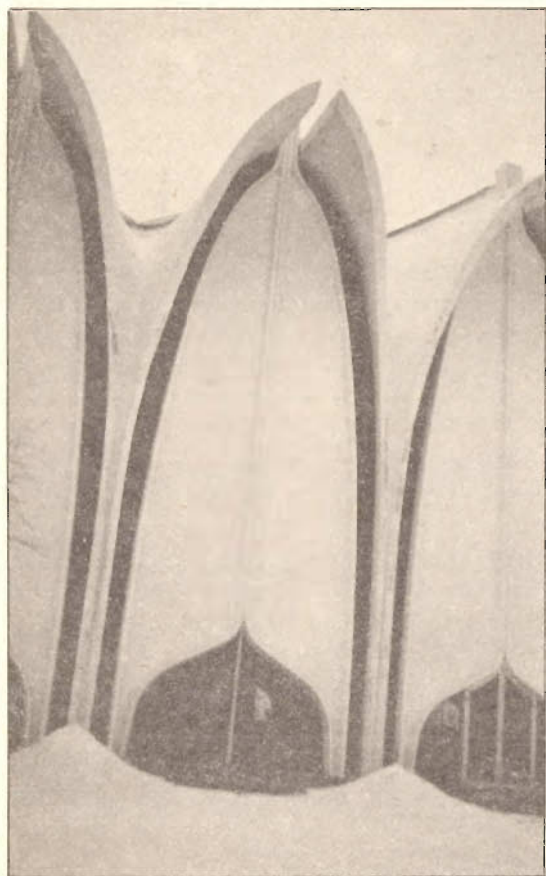
무디교회의 위치는 시카고 중심가 클락크가(Clark Street at North Avenue, Chicago, 111, 60614 Senior Minister, Warren Wiersbe)에 위치하고 있으며 무디선생의 선교는 세계적으로 큰 공헌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웨스트민스터교회 전경)



〈시카고 노스쇼어 유대교 전면〉



〈시카고 노스쇼어 유대교 창문부분〉



〈시카고 노스쇼어 유대교 측면부분〉

무디학교 견학을 마치고 무디교회로 갔다. 무디교회도 한부락 전체가 그 교회 건물로 꽉 차 있어서 공지에 여유가 별로 없었다. 교회 외관의 건축적 방식은 로마네스크형(Romanesque)으로 창문방식이 두개 세개의 연속아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외부 재료는 붉은 벽돌로 견고하게 설계가 되었는데 우리가 외부에서 보기엔 오페라 하우스(Opera House)나 박물관의(Museum) 건물같이 느껴졌는데 내부에 들어가 보니 좌석 배치나 강대상 배치나 성가대석 배치가 참으로 짜임새가 있어 보였다.

강대전면 전체가 파이프 올겐으로 꽉 차 있어서 음악의 최대효과까지 고려하여 음향적인 차원에서 볼 때 잘 되어 있다고 보겠으며 실내의 전체적인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겠다. 스피카 1개로(1 Point System) 방전체를 카바하고 있었다. 총수용 인원수는 4200석이고 실폭이 약 35m 정도이고 길이가 50m 정도로 우리 충현교회 새성전보다는 약간 작았다.

삶을 투자하는 지도자

오 태 용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결과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사회에서 덕망있고 존경받는 계층으로 통하는 목사·장로급 후보자는 낙선한 반면 국민의 지도자라고 말하기엔 좀 쑥스러운 계층이랄 수 있는 연예인 출신의 후보자들은 당선된 것이다. 확실히 지금은 시대가 바뀐 모양이다. 달라진 시대는 달라진 지도자상을 요구하고 있음이 이미 미국과 일본을 통해서, 그리고 요근래는 우리나라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새삼스런 얘기지만 오늘날 연예인은 대중과 평장히 가깝게 밀착되어 있다. 그들은 대중의 삶을 알고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간파해서 그들의 삶을 운택하게 해 주려고 노력한다. 이번에 당선한 연예인들은 선거구민의 삶의 현장 속에 뛰어 들어 그들과 호흡을 같이 하며 자기의 삶을 그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그들 위에 군림하는 지배자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 동참하여 봉사하는 섬기는 자로 살았다는 말을 듣는다.

한편 우리 교계에서 지명도가 높은 교회 지도자급 후보자들은 어떻게 해서 낙선을 하였을까? 여러가지 정치적 변수가 작용하는 것이겠지만 문득 생각키는 것은 혹시나 그들이 이 사회를 교회 안으로 착각하고 쫓는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는 저들이 으레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도 그 논리가 통할 줄 알고 입후보 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하면 그들은 시대의 요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입으로 주장하거나 일시적인 제스처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리에서 내려가서 사람들 속에 뛰어들어 그들과 함께 하며 섬길 때 가능해진다. 이는 선거에서만 그런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더욱 절실한 문제이다. 교인들을 높은 강대상에서 호령만 하는 지도자보다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예수님 처럼 그들의 삶 속에 뛰어들어 같이 살아주는 섬길 줄 아는 지도자를 신도들은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른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새 158〉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고난의 겹세마베와 베푸신 크신 사랑을
갈보리로 인도하사 잊잖게 합소서

갈보리 언덕에 우뚝 서 있는 십자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고 가신 고난의 십자가였다. 이 십자가는 사망과 죄악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온 인류에게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안겨준 십자가가 아닌가?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을 통하여 얼마나 그가 당하신 고난을 체험했는가? 그리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을 얼마나 감사하며 기뻐 찬송했는지? 우리에게 해마다 찾아 오는 절기 이상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 볼 수 있단 말인가?

우리 모두 금년에는 나 위해 지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면서 찬송을 부르자! "나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라고..... 그리고 "고난의 겹세마베"동산에서 "베푸신 크신 사랑을" "잊잖게 합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부르는 찬송이 되기를 바란다.

"고난의 잔을 나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날마다 나도 십자가 견디게 합소서"(4절)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 위해 고난의 잔을 마시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도 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내가 제물되겠나이다. 받으시옵소서. 그렇지만 나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이시여! 십자가를 지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찬송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음미하며 부르기를 바란다.

이 찬송은 극히 최근의 찬송으로 허시(Gennie Eveyn Hussey, 1874-)라는 분이 시를 썼고 키펙트릭(Wm. J. Kirkpatrick)이라는 사람이 1921년 곡을 붙인 것으로 되어있다.

김 하 진 목사 〈성가부지도〉

도서실은 여러분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도서실은 신학 및 기독교 관계와 그밖의 많은 서적을 구비하고 성도들이 문헌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신앙에 관한 진리 탐구를 하도록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 3월중 들어 온 도서 -

I. 구입도서

1. 참고서

- 1) 기독교대백과사전 ; V. 2 기독교문사, 1981, 1275P.
- 2) 성서백과대사전 V. 7 ; 성서교재간행사, 1981, 903P.

2. 주석

- 1) 메살로니가전후서 ; 헨드릭슨, 윌럼저. 김용섭역. 아가페출판사, 1980, 301P.
- 2) 목회서신 ; 헨드릭슨, 윌럼저. 나용화역. 아가페출판사, 1980, 537P.
- 3) 칼빈주석 - 이사야서 ; 존 칼빈저. 성서교재간행사, 1981.
- 4) 요나서사경 ; 이성근저. 한국목회자료연구소, 1980, 205P.

3. 조직신학

- 1) 메이켄의 신학 ; 메이켄, 그레샴저. 조동진역. 크리스찬헤럴드, 1980, 233P.
- 2) 주체별성경연구 ; 한국기독교선교원 성경연구위원회, 두란노서원, 1981.

4. 기독교윤리

- 1) 크리스찬의 자기성찰 ; 후크마, 안토니A. 저. 정정숙역. 1979, 181P.

5. 기독교교육

- 1) 교육신학의 실제 ; 뤼처즈, 로런스저. 문창수역. 장경사, 1980, 397P.

6. 한국교회사

- 1) 영계길선주 ; 길진경저. 종로서적, 1980, 39P, 21cm.

II. 신구독도서

教会音樂 (Church Music) - 「계간」, 전희준발행.
교회음악사.

□ 한 달에 책 한 권씩 읽읍시다 □

.....신문·잡지 얼마를 읽는 것으로 독서한.....
.....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생활에.....
.....여념이 없는 우리 평신도들로서는 중요.....
.....성을 인식하면서도 증체 책을 대하지 못.....
.....한다는 것이 숨김 없는 고백입니다. 그.....
.....러나 이런 상태로 머무를 수는 없습니.....
.....다. 우리 신앙 생활에 보탬이 되는 귀.....
.....한 책들을 골라 적어도 한 달에 책 한.....
.....권씩은 꼭 읽는 습관을 키워 가자는 의.....
.....도에서 우리는 전교인들을 향해 이와.....
.....같은 캠페인을 벌입니다.
.....「월간중현」 편집실

◇ 책 소개 ◇

앤드루 머레이, 김희보 역

겸손

종신대학 출판부, 150페이지, 2,000원

겸손: 이 말은 성도라면 누구나 귀에 익숙한 단어요, 또한 소유하기를 원하는 기독교의 핵심적 진리요 도덕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할 하지만 이 사랑은 겸손의 뿌리에서 피어난 꽃에 불과한 것이다.

본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비결을 완전한 겸손의 결과로 본다.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보겠다는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 영원한 파멸을 초래했으며,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아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와 사마의 권세에서 놓인 바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써의 영원한 기업을 회복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저자는 구속주으로써의 그리스도의 특성을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책은 피조물의 영광인 겸손, 속죄의 비결인 겸손, 예수의 생활에 나타난 겸손, 예수의 교훈에서 보는 겸손, 일상생활에서 보는 겸손, 예수의 제자들에게서 보는 겸손, 겸손과 성결, 겸손과 죄, 겸손과 신앙, 겸손과 자아에 대한 죽음, 겸손과 행복, 겸손과 영화등 제12장으로 되어 있다. 각 장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심오한 명상과 경건생활의 지침이 되는 교훈들로 가득 차 있는 책이다.

김 순 애 전도사 (5지구 심방담당)



〈우리 교회 초기의 교역자들. 앞 줄 좌측이 고 이명달전도사, 뒷줄 우측 김장인목사, 고 이명달 전도사는 1958년에 중현교회에 부임하셨다〉



〈1964년 12월 27일 김연순(우측에서 둘째) · 이명달(우측에서 첫째) 전도사의 은퇴 및 공로전도사 추대식〉



〈공로전도사 추대식을 마치고 장로 · 권사님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



〈전도사직을 은퇴하신 후 집에서 화단을 정리하시며 쉬시는 생전의 고 이명달 전도사 모습〉

고 이명달전도

□ 조 사 □

엄위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고 이명달 전도사님 영전에 삼가 드리나이다.

꽁꽁 얼어 붙었던 시냇물은 졸졸졸 소리를 내며 흘러가고 겨우내 추위에 얼기뼉고 오들오들 떨던 나뭇가지들은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에 축축이 내려지는 봄비를 맞으며 파릇파릇 돌아나는 푸른 잎 새우트로 갈아 입고 나를 반겨 달라는듯이 나타나는데,

오늘 밤 이 시간 이 자리에는 전도사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던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과 당회원들, 그리고 눈물로 가꾸고 키워주신 후진 교역자들과, 그보다도 업고 안고 쓰다듬어 길러주신 수많은 양배들이 이곳에 모였는데, 아니 단짝지어 일하시던 김연순 전도사님도 앉으셨는데 유독 전도사님만은 나타 나 앉으셔야 할 자리에 앉지 않으셨네요.

그동안 몸져 누우셨다는 소식은 전해 들었지만 성큼 달려가서 뵈울 수도 없는 먼 거리였기에 한번 뵈옵지도 못한채 가시었네요. 병석의 모습을 제 눈으로 보지 못하였기에 아직도 생각나는 모습이란 송죽같은 굳은 절개, 주님 향한 일편단심, 여성적인 어머니의 상(像)보다는 차라리 엄위하신 아버지의 상이 훨씬 더 어울릴 것만 같아. 아무리 보아도 그는 치마를 둘렀으니 여자이지 어느 남자가 아니 어느 목사님들이 가지기 어려운 강직한 성품, 불의를 보고는 참을 수 없는 굴지의 여걸, 제 아무리 발뺌고 달린다 해도 따를 수가 없구먼요. 그러나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느 해인가 봄, 대심방 끝나는 날 마지막 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둘러 앉은 자리에서 “내 오늘 대심방 마치고 나니 마음이 기뻐서 노래 한마디 부르고 싶다. 들어보라”하시면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눈물 지으며 마지막 절까지 다 암송으로, 은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듯 퍼꼬리 같은 목소리로 얼마나 얼마나 높은 음까지 올라 가는지, 늘을 줄 모르는 그 목소리 이제는 정말 들어볼 길이 없구먼요.

제가 전도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제 손목을 꼭 잡고 하시는 말씀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더니 구집사가 전도사 되었다니 참말 기쁘다. 그저 죽기까지 정말 죽기까지 충성하라” 하시던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의 말씀이 아직도 귀에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전도사님, 일하시던 중 제일 어려웠던 일은 어느 때였습니까?”라고 여쭙어 보았더니 “주님이 하시는데 내가 어려울 게 뭐 있나? 그러나 내 한 두가지 알려줄 건 있지. 혹시 초상이 나

를 생각하며

그렇게 소원하시던 새성전 건축허가가 나왔는데 기뻐하시지요. 아니 허가만 나온 줄 아십니까. 착공예배 드리고 기초를 쌓고 지상 2층, 3층, 5층이 올라가는데, 머지않아 입당예배를 서두를 터인데 그때에 전도사님은 제일 먼저 김연순 전도사님과 나란히 앉아 헌당예배를 드리셔야지요.

거든 부디 가서 잘 막으라. 잘못 막으면 바람 들어가 시신이 부으면 옷 입히고 관속에 모시는데 힘이 드니라. 다음 또 한 가지, 우리 김목사님 시집살이 처음에는 되게 긴장되니라. 밥먹다 밥풀 하나 떨어지면 집어 먹어야 하고 초종 치면 먹다가도 술갈 놓고 일어나야 해. 그래도 그 시집살이 잘하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양약이 되어 참 목자가 되는 지름길이 된단다.”

이런 말 저런 생각 하려면 꼬리를 물고 일어나지만 해도 소용없고 불러도 답이 없는 고 이명달 전도사님, 그렇게 소원하시던 새 성전 건축허가가 나왔는데 기뻐하시지요. 아니 허가만 나온 줄 아십니까. 착공예배 드리고 기초를 쌓고 지상 2층, 3층, 5층이 올라가는데 머지않아 입당예배를 서두를 터인데 그때에 전도사님은 제일 먼저 김연순 전도사님과 나란히 앉아 헌당예배를 드리셔야지요.

또 꿈에도 소원이던 북한선교가 이제는 막이 열리기 시작하여 중공교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북한선교회 이사진과 우리 교역자들이 한국 산업의 눈부신 발전상을 시찰하고 돌아 왔습니다. 머지 않은 장래에 북한에도 가서 시찰하게 될 날이 올 것 입니다. 그러면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항상 외치시는 백두산 소나무 찍어 무너졌던 성전 수축하고 평양 가서 부흥회 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읍니다. 그때에는 우리 모두가 한 손엔 십자가 한 손엔 성경들고 전도사님이 앞장 서서 들어가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특송을 해야지요. 우리의 욕심 같아서는 그때까지 만이라도 꼭 붙들고 또 붙들고 막고 또 막고 싶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니 어찌 아니 보내 드리리요.

김연순 전도사님께서 이명달 전도사님의 소원의 소식을 들은 첫 마디의 말씀이 뭇지 아십니까? “ 좋겠다. 천당가서 참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참 좋은 곳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셨으니 뭐라서 이 길을 막을소냐.

오! 치마 두른 여걸이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길이길이 비추소서. 고이고이 잠드소서.

1981. 3. 25.

중원교회 교역자 대표

구 명 신 전도사



(몸이 쇠약하시어 부산 자택으로 내려가 요양하시던 중 1981년 3월 2일 (만80세) 하늘나라로 가심. 윤형철목사의 집례로 영결식을 가졌다)



(본 교회 장로님들이 참석, 운구하여 부산 실로암 새부산 공원묘지에 안장했다)



(교회에서는 3월25일(수) 고 이명달전도사의 주도예배를 드리며 고인의 신앙과 봉사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도예배에는 고인의 진지와 온 교인들이 모였다. 고인의 유가족들의 모습이다)

칼빈주의 성경관

김 하 진 목사

(부목사·성가부지도)

칼빈주의에서는 인간이 자연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들은 죄 때문에 자연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한 성경을 주셨다고 믿는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성경은 자연계시를 바로 해석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는 표준이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자연계시를 해석해 주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연계시가 인간에게 보여주지 못한 모든 하나님의 의지와 구원의 경륜을 주시어 영원히 효력 있는 절대적인 말씀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인간에게 교훈을 주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인간이 순종치 아니하면 안되는 절대적인 진리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순종치 아니하면 망할 수 밖에 없고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써만 구원받게 되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리고 칼빈주의자들은 이 말씀이 전적으로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기록된 것이므로 절대 오류가 없다고 믿는다. 이러한 사상은 칼빈 자신의 사상 체계가 아니고 성경 말씀을 바로 해석한대로 그대로 믿어 나가는 사상 체계이다. 따라서 칼빈주의에서는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것으로 믿어 성령에 의한 중생이 모

든 연구에 선행하여야 할 것을 믿는다.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믿으면서도 알려고 하지 않는것은 잘못이다. 칼빈주의는 정당한 연구를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합법적인 믿음의 자세로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달아 아는대로 믿는 주의이다.

1. 성경의 권위

칼빈주의에서는 성경의 권위를 말씀 자체가 증거한다고 믿는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의 독자적 권위라 한다. (히 3 : 7 ; 행 4 : 25)

오늘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되는 증거는 성경의 내적 조명이 없는 성경을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만 인간에게 바로 증거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적 증거를 주시기까지는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있게 말씀을 받아 들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위탁한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확신있게 받아 들이도록 하기 위하여는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도 역사해야 된다"고 했다.

딤후 3장 16절의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창조적 기운의 산물"

(The product of the creative breath of God)이란 뜻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 넣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신 것이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경험도 중요하겠으나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아닐까?

18세기 초까지만 해도 성도들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근대신학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슈라이엘 막히가 기독교 신학에 획기적인 변동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그것도 그가 기독교의 전통적인 신앙을 성경에 두지 아니하고 인간의 이성, 감정에 두었다는 것이다. 그는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인간의 정서에 표준을 두려 하였다. 이렇게 불건전한 신비주의자들은 신앙의 표준을 자기 감정에 두려고 한다. 한편 자유주의자들은 인간 이성에서 신앙의 표준을 찾으려 한다. 이러한 양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감정에 신앙의 표준을 두려는 사람들은 대개 무식한 계층이고 이성에서 신앙의 표준을 두려는 사람들은 유식한 계층의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칼빈주의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칼빈주의에서는 인간의 지성이나 감정을 무시하거나 그들에게 표준을 두지는 않는다. 오직 성경자체에서 그 권위를 찾는다. 그러므로 내 감정, 내 지성을 성경의 권위 밑에 복종시키지 않는 자는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다.

칼빈은 말하기를 "어떤 신학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약되어 인정을 받을 때에는 어떤 사람도 인간으로서의 상식과 육감을 결여하고 있지 않은 한 말씀하신 자를 불신할만큼 뻔뻔스러울 수는 없다. 그러나 말씀이 매일 매일 하늘로 부

터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진리를 영구히 기억되게 하기 위하여 그가 기뻐하신 수단으로 성경책만을 존귀케 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갖는 권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직접 육성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성경이 하늘로부터 발설(發說)된 것임을 확인하는 데서만 그 권위가 생길 수 있다.” (1권7장1항)

이상에서 칼빈의 성경에 관한 중심적 사상을 엿볼 수 있으며 성경이 “하나님의 영원하고 침범할 수 없는 진리”라고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주장하기를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 (1권7장4항)라고 말한다.

헬만 바빙크(H. Bavinck)도 말하기를 “성경은 자중적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기초이다. 어떤 사람이 왜 당신은 성경을 믿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다고 대답할 수 밖에 없다. 한걸음 더 나아가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믿느냐 묻는다면 이상 더 대답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요10:35)고 하심으로 성경이 가진 권위를 확인하고 있다.

2. 성경의 특성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성경의 특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말씀과 환상(Oracles and Visions)으로 조상들에게 계시하셨든지, 아니면 사람을 방편으로 하여 그들의 봉사를 통해서 그들이 후대까지 전승시켜야 할 것을 나타내셨든지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준 계시의 정확성이 그들의 마음판에 확실하게 새겨져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이 배운 바 계시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항상 확실한 증거

가 있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의 말씀은 단순한 의견과는 달리 무한히 월등한 성질의 것이었다.”

또한 칼빈은 계시가 성경으로 문서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음을 우리는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 배은망덕하여 하나님을 잘 잊어버리고 여러가지 잘못을 저지르며 가끔 새로운 거짓 종교를 만들기를 얼마나 좋아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교리의 창고를 만드는 것이 아주 필요함을 곧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교리가 인간의 나태함과 잘못 때문에 무산되거나 인간의 주체념은 오만불손 때문에 부패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1권6장3항) 유전과 관련된 잘못에의 가능성은 성경으로 문서화되는 것(inscripturation)을 불가피하게 해 준다. 그리고 한국교리(Celestial Doctrine)의 문서화는 인간의 나태와 허물과 오만불손으로부터 그것을 보존해 준다.” 계속해서 칼빈은 말하기를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게 된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의지하여서는 믿을 수가 없다. 즉 인간의 판단을 초월하여서만 성경이 하나님 자신의 입으로부터 직접 받아 인간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음을 완전히 확신하게 된다.” (1권7장5항) 그리고 또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가 절대적 진리를 가지고 있음을 완전히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사도들과 그들의 계승자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사도들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확실하고 권위있는 필기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쓴 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들여져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계승자들은 다만 성경에 계시되고 기록된 것을 가르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4권8장9항)

3. 가정에 대한 견해

신·구약 성경 66권 이외에 많은 가경들이 있다. 그런데 칼빈주의에서는 66권만 정경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주교에서는 66권에 15권을 더 추가하여 정경으로 인정한다.

그러면 구교에서 인정하는 가경을 칼빈주의자들은 무엇 때문에 인정치 않을까? 이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다.

1) 그것은 로마교회에서 가경을 정경으로 인정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구약 39권은 정경으로 인정하면서도 가경은 인정치 않았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정경의 권위를 규정할 때 정경을 기록한 예언적시대(Prophetic Period)를 정하였는데 그것은 모세로부터 아닥사스다 때까지였다. 그런데 로마교회가 인정하는 가경은 아닥사스다 때보다 훨씬 후대에 기록한 것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그리고 신약 성경이 전연 가경을 인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15권이 되는 가경에서 단 한 구절도 인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3)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받아 드릴 수 없는 과오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원 교리에 있어서는 십자가의 공로로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공로가 되는 것으로 가르친다. 한편 구제사업이 죽은 자를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Tobit 12:9, 4, 10, 14, 등)

로마교회에서는 정경을 규정하는 권위가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는 원칙에서 결정하였으나 칼빈주의에서는 정경의 권위를 정하는 것이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교회는 정경을 지배할 권한이 없고 정경이 교회를 지배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정경은 교회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영감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

해외선교사 · 선교지 소식

인도네시아—석 만 수 선교사

1. 특별집회

3월 9일~11일까지 강진선목사님(싱가폴한인교회 시무)을 모시고 특별집회를 가짐.

2. 오지순회

1981년도 1차순회를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은혜중에 마침.

특히 극심한 침수의 피해를 입은 주와나지역 소재 두꾸달필교회 등을 방문, 의류 300점과 성경책 150권 배부.

침수의 피해가 가장 컸던 그로윙교회의 수리비로 714\$을 보조, 룰봉마스교회에는 895\$ 보조.

특히 작년 10월부터 개척중에 있는 강력범과 전과자들의 마을인 틀로고모조교회는 동리에서 가장 큰 집을 빌려 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며 이미 40명의 교인이 수세를 위한 교리공부를 마침.

3. 일시 귀국예정

4월 22일~5월 20일까지 선교정책 및 기타 협의전으로 일시 귀국예정.

* 기도제목 *

한해, 수해, 맹수의 위협을 무릅쓰고 계속 각 지교회가 부흥토록.

홍콩—홍충만 선교사

1. 한인교회

- ① 오태희장로 내방
- ② 한인교회 부흥강사로 정상우목사님을 결정. 초청장 우송.

2. 중공선교

- ① 중공에서 계속 우편물접수 및 발송.
- ② 마카오교회, 에이시안 아우트리치 및 중국교회 연구센터에 각각 선교비 보냄.
- ③ 미국 남장로교선교부 아시아지역총무와 중공선교협의, 중국교회 연구센터 방문하고 중공선교협력을 협의.

④ 2월 8일 마카오교회 창립1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고 9일 저녁에는 특히 복건성에서 이주해 온 중국인을 위해 특별집회를 가졌음(약 100명 참석). 마카오교회에서는 매주 1회씩 이를 위해 복건어로 예

배를 드릴 계획임. 이들 위한 교회가 시급하다고 함.

* 기도제목 *

- ① 대중공선교 위한 선교기관 설립을 위해

애굽—이준교 선교사

① 3월 24일 본부에서 송금한 선교비 6350\$을 수령.

② 카이로 한인교회와 동산살람 현장에배를 은혜중에 인도중.

③ 2월 26~27일 중부 이집트의 기독교 중심지인 미니아시와 아슈트시를 방문, 교회현황 살피고 헌금.

④ 3월 3일 애굽복음주의 신학교 방문, 교장 베키 사다카목사를 만나 신학생 위한 의료장학금 애굽화 200파운드(미화 약 300\$)전달.

⑤ 3월 6일 동산토건회사 살람현장직원 및 기능공(19명)인솔하여 카이로 시내 고적지 탐방안내.

⑥ 3월 8일 카이로시 파칼라 복음주의교회 주일 저녁예배에서 설교.

⑦ 3월 12일 애굽복음주의 교단 총무 사무엘 하비 브록사방문, 지교회 지원금 3월분 전달.

* 기도제목 *

- ① 동산토건의 마며현장 가정교회가 개척되도록.

서독—육호기 선교사

① 빌트후렌(Wildflecken) 순회예배.

3월 7일에 뷔츠부룩에서 약 100km떨어진 빌트후렌에서 순회예배를 드림. 예배후 신앙상담. 앞으로 매주일 예배설교를 녹음하여 보내서 테이프설교를 듣고 예배토록 약속. 교인들은 있으나 교역자가 없어 안타까이 기도중.

② 하나우교회 대심방을 두 주간(3월 둘째, 셋째 주간)에 걸쳐 마쳤고, 뷔츠부룩교회는 네째주일부터 대심방중.

③ 선교사님 동정

5월 초순경 부친의 중환으로 일시 귀국예정.

* 기도제목 *

- ① 선교사님 부친의 회복을 위해
- ② 한인교회 부흥을 위해
- ③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

호 주-김 태 현 선교사

공한미착

* 기도제목 *

- ① 선교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위해.
- ② 선원선교활동의 효과적인 전진을 위해.

아르헨티나-백 성 룡 선교사

① 카렌다, 교인교사수첩, 성경주석, 교재등을 잘 접수

②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이 잘 처리되었다고 보고.

* 기도제목 *

- ① 한인교회의 안정과 합심을 위해
- ② 선교사님의 선교사역 승리를 위해.

파라과이-김 재 창 선교사

공한미착

* 기도제목 *

생활적응, 가족건강,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

칠 레-유 재 일 선교사

① 한인교회 추계대심방을 은혜중에 마침 (3월9일 ~21일, 등록교우 55세대)

② 3월13일 특별제직회를 목사관에서 개최하고 80년도 결산안과 81년도 예산안을 심의.

③ 3월15일 공동의회열고 결산 및 예산안 통과

④ 칠레장로교사를 기독교신보에 연재할 계획.

⑤ 3월19일 8시30분부터 원주민 가정교사를 두고 언어교육에 열중하고 있음(월 100\$).

* 기도제목 *

- ① 선교사님의 어학공부를 위해.
- ② 속히 독립된 성전을 허락하시도록.

인 도-엘리야 갠간 선교사

① 선교사님의 부친께서 3월4일 심장마비로 소천 (77세). 3월8일 장례식.

② 선교협의차 3월25일~4월18일까지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에 선교여행.

* 기도제목 *

① 선교사님의 위로 및 모친의 건강과 (3개월간 와 병중) 3남3녀의 자녀들 위해.

② 선교사님의 선교사역과 카시미르 및 라다크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일 본-유 병 세 평신도선교사

① 이권사님 부인 성경반 계속 인도.

② 대합실전도, 병실, 외래입원환자 수시 전도중.

③ 광미교회에 있던 미국 선교사인 브로써(Brosser) 선교사 내외가 정년으로 6월1일 출국예정. 교회일을 더욱 많이 맡게 될 예정.

* 기도제목 *

- ① 유선교사님 내외분의 지속적인 건강을 위해
- ② 증가될 교회임무 감당을 위해.

서 독-박 용 삼 평신도선교사

① 계속 학위논문 준비중.

② 연구후의 계획을 구상.

* 기도제목 *

선교사님의 전도활동 및 논문통과를 위해.

본부소식-해외복음선교회

① 본회 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최석주장로님과 저도 김영휘장도사님이 선교지 순방계획으로 오는 7월30일~9월30일에 걸쳐 세계일주순방여행을 떠날 예정이다.

장로



조 현 명 장로
(월간중현 편집위원장)

이스라엘의 지파와 가족의 어른을 장로라고 불렀고 때로 '노인'이라고도 한다. 가나안에 정주한 후에는 '고을의 장로'가 지파와 가족의 장로를 대신하게 되고 그 행정 기구를 맡았다.

후대에 회당을 만들게 되어 지방장관으로서 정치적 지방 지도자가 되어 있는 장로는 회당의 장로로 되었다. 또 공회 의원의 민간 대표를 장로 또는 백성의 장로라고 부르게 되었다. 또 공회 '산헤드린'(Sanhedrin)은 유대교 공동 회의로 최고 회의에 해당된다. 로마 시대에 창설한 것으로 대소(大, 小) 두 종류가 있었다. 대(大)산헤드린은 70인의 의원(공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제사장 24, 장로 20, 서기관(학자) 22,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그 직능은 국민의 종교생활을 감독하는 것이 본무이지만 민사, 형사 문제도 처리하고 벌금과 태형(笞刑)등을 처할 권한도 있었다. 그러나 사형(死刑)만은 로마의 통치권 밑에 있었다. 소(小)산헤드린은 지방의회(地方議會)이다. 각 읍, 면 같은 곳에 설치되어 지방적인 작은 사건들을 처리했다. 태형의 권한이 있고 성인(成人) 120명 이상의 도시에는 23명 그 이하에는 3~7명의 장로로 구성했다.

목사보고도 장로라고 한다. 목사는 말씀 선포 즉 설교와 성례를 집행하며 치리권(治理權)이 있다. 그러나 장로는 목사의 목회를 행정적으로 돕기 위하여 교인들의 대표인 회중의 원로로 교회에 관하여 교회의 일을 하는 것 뿐으로 치리권만 있다.

성전은 제사장을 중심한 성전 체제를 말하고, 회당은 회당장을 중심한 회당 체제를 말하며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정치하는 곳이다. 오늘날 교회는 당회장 체제를 연상시키고 있으나 당회장 체제가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번도 교회를 성전이나 회당 체제의 연장으로 또는 그 보충으로 생각하시거나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당시 유대 종교의 성전이나 회당에서는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입에 담을 수 없는 독설(毒舌)로 비판하신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관으로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받을 주된 기관이요 진리를 위하여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며 충실하게 전파하며 생명 얻는 회개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교도(敎導)하는 곳이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교회를 다스리는 자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가 아닌 것이다.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의 하나의 도구인 것이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이다. 몸의 지체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 그리스도와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에 따라 교회의 본질을 깨달아야 하겠다.

장로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성도들의 신앙을 키우기 위하여 진리로 가르치고 항상 축복해 주고 잘못을 책망하고 기도하며 지혜롭게 권면하며 잘 길을 지시해 주고 하나님의 양떼를 감독하고 기도, 헌금, 성수 주일에 모든 성도의 본이 되어야 하며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할 봉사

적이며 부득이한 경우 처리하는 것이다.

장로의 자격은 겸손히 선한 일에 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엄격하나 남의 잘못을 관용하며 사욕을 금하는 자라야 한다. 장로를 택하는 방법은 교회에 등록된 남자 세례 교인으로 5년(통합측 7년, 고신측 5년)이상 덕을 세운 책망할 것이 없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무흠 입교인으로 30세 이상자로 남녀 세례 교인이 투표하여 투표자 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음으로 당선이 확정되는 것이다. 바울은 장로의 직분이 명예스럽다거나 편안한 자리라는 것보다는 그것이 가장 높고 은혜 끼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존경스러운 것이라고 하였다.

노회에서 장로 선거 허락을 받은 후에 규정에 따라 공동의회에서 장로로 피택된 사람은 6개월 이상 당회 지도 아래 교양과 훈련을 받으며 감사와 회개의 생활을 하면서 남은 때를 바로 살도록 간구한 후 노회가 시행하는 장로 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하며, 합격된 사람은 당회가 실시하는 시일에 장로 임직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교인이 투표하여 뽑은 대표자를 목사가 안수하므로 장로가 되는 것이지만 이 일이 이렇게 되게하신 과정을 섭리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다.

장로 선거에 있어 첫번 투표에서 당선이 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으나 장로 선거는 입후보를 하거나 추천을 하거나 배수 공천하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첫번에 당선자가 결정되기는 어려운 일이다.

5년전 일이다. 장로 하기 수양회 저녁 시간에 자유롭게 간증하는 시간을 가진 일이 있었다. 그때에 나는 우리 장로님 중에 남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돌보며 구역 교인들을 위하여 친절히 진지하게 의논에 응하고 교인들의 신앙 생활을 올바른 노선으로 지도하시는 모범 장로님이신 '고마우신 장로님'(Gracious elder)의 예를 든 적이 있었다. 장로님의 그 행동 범위는 교회안에서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까지 미치고 있었다.

장로 장립을 받으신 분들이 시무장로님 내외분을 초청하는 일이 4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초대 받은 석상에서 '협조의 본을 보이신 장로님'과 같이 되기를 소원한 바 있었다. 장로님은 그 당시 주일학교 모 부의 부감으로 계시면서 타부와 경쟁을 하려고 대립하거나 고집을 세우려 하지 않고 해결안까지 제시하는 젊은 장로님이셨다. 나는 이런 분을 '실제적인 장로님'(practical elder)이라고 부르고 있다.

다음 해 초청을 받았을 때에는 '건강과 기쁨의 본

이 되시며 유모어가 풍부한 장로님과 가정'이 되기를 원하면서 말씀드렸다. 건전하고 순수한 적당한 유모어는 우리 환경의 어느면으로 볼지라도 절실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생활과 사고(思考)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모어(諸謔)는 커다란 인간화(人間化)의 요소로써 작동할 수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그 다음 해 초대하신 장로님 중 한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미리 드렸더니, 그 장로님은 초대에 비용이 좀 든다고 하였다. 나는 이에 응하여 '장로님은 이번 한 번 초대하면 앞으로 20번이상 초대를 받을 터이니 이야말로 수지(?)가 맞는 투자(投資)가 아니냐'고 말하여 서로 웃은 일이 있었고, 지금은 여러가지 형편상 장로님 내외분만 초대하지만 과거에는 교회 전체 잔치를 가졌었다는 지난 일을 알려드렸다. 이번 장립 받으신 장로님들께는 앞으로 선배 장로님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시고 어디를 가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주님과 같이 있는 은혜를 받으셔서 영광은 하나님께, 칭찬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돌리고 책임은 내 자신이 지고 박수 갈채를 받을 때에는 만족하지 말고 나를 이끌어 주기 위한 비판이나 편달의 매질로 삼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고전 15:10)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다.

그 후 2주일만에 해외로 이민가시는 장로님과 선거에 당선된 장로님을 모신 환송회겸 축하회 석상에서 '진리를 알지니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8:32)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분께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고 큰 성공 있으시기를 기원한 바 있었다.

'해외에 가서 교회를 받들어 섬기며 돈을 버는대로 모교회를 돕겠다'고 고마우신 말씀을 주신 장로님과 '나에게 지난 날 많은 허물이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새로운 사람으로 출발하겠다'고 회개의 말씀을 하시며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할 뿐이라고 하신 장로님께서는 앞으로 험로(險路)를 걷는다고 해도 충성을 다하시겠다는 굳은 결심을 보여 주셨다.

나는 선거에 당선된 장로님께서는 앞으로 산 넘어 산, 장벽이 너무 두꺼워 앞길이 평탄치 않아 주위에서 열려하고 있음을 말하였다.

지난 최근 초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도 바울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딤후 4:7)의 말씀과 같이 달려서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가져오도록 계획을 세우고 실천

에 옮길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남은 장로 시무기간에 제 1차, 제 2차 3개년 계획을 마음 속에 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20년, 30년 내외를 달리실 장로님들께서는 장기계획, 단기 계획을 수립 실천하여 완성 보고를 낼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가장 젊은 장로님은 앞으로 30년간 열심히 뛰고 남은 3년간을 보고서 작성 기간으로 삼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나는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지적(知的)으로 수준을 높인데 두고 사시는 장로님을 존경하고 있다. 그분들은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올바른 노선에 올려 놓으며 살 길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뚜렷하게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는 이미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과 현재 재학 중이신 분이 많이 계셔서 장로님으로서의 빛을 발하여 수준 높은 교회가 될 것을 생각할 때 경하해 마지 않는다. 앞으로 희랍어 원문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가르치시는 장로님이 많으실 것을 기원한다.

장로의 정년(停年)은 우리 교회에서는 70세 (통합측 교회 70세)로 정하고 실시하고 있다. 본인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얼게 하소서' (시 90:12)의 말씀을 명심하며 살아오는 중 지난 1979년 1월 19일에 장로 정년일 계수표를 만들어 놓았다. 그 당시 2539일이 남아 있었으나 '81년 4월 5일 현재 1700일 밖에 남지 않고 있다.

재래 국가 공무원의 정년 날짜는 자기의 생일을 기준하고 있었으나 너무나 번거로와 2년전 부터는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되도록 상, 하반기 두 차례로 나누게 되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정년에 달하기 전년도 12월말에 공로장로 또는 명예장로로 편입된다. 바꾸어 말하면 자기가 난 해에 70을 더한 해는 시무장로의 명단에서 빠지게 된다. 이와 달리 정년에 달하는 해의 연말까지 복무하는 부문도 있다. 장차 평균 수명이 늘고 건강하여 장로직 시무에 지장이 없고 장로의 절대수가 부족된다면 장로 시무 연한의 연장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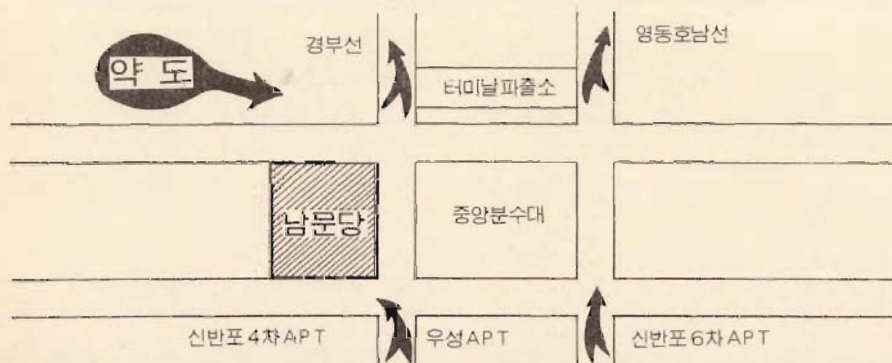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세우신 귀한 직분인 장로들은 장로직의 고귀성을 깨달아 그 직분을 기쁘게 충실되게 감당할 때 위로 내리는 축복과 하늘나라에의 영원한 소망이 함께 주어질 것이다.

창업 48년의 신용

금·은
시 계

남 문 당

金正泰 집사



터미널 강남지하상가(중앙분수대) 599-3776, 593-0192

2 월중 새 교우 명단

- 새 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 | | | | | | |
|--|--|---|--|--|--|
| ● 1 지구
수유 1구역 박현수
성북구역 현남수
종암 2구역 유성철
보문구역 이영선
안암구역 김항근
상계 2구역 이경자
장위 1구역 장인자
우이구역 명미
미아 7구역 이형우 | 전호 2구역 최달식
중화 1구역 이원식
도선구역 차기룡
전농구역 이정희
행당 1구역 윤정애
강동구역 윤명남
구의 1구역 이진숙
자양 2구역 박명옥
이문 1구역 임수자 | ● 3 지구
장충 3구역 윤순규
장미구역 김석영
광희 1구역 김화옥
화양 1구역 김영옥
신당 5구역 김강자
잠실 3·4구역 유계봉
쌍림 3구역 김영희 | 이태원구역 김활연
보광 1구역 천귀순
● 5 지구
사당 2구역 이궁자
상도 3구역 오계주
봉천 3구역 김현숙
상도 3구역 박금희
필동 3구역 권달윤
필동 9구역 최선희 | 화곡 2구역 이순옥
인현 1구역 추종식
여의 1구역 강영준
망원 1구역 오명희
역촌 1구역 고삼숙
인현 2구역 임재열
인현 3구역 신일정
화곡 1구역 오재호
부천 2구역 고정자
부천 1구역 양공자
광명구역 원경순
진양구역 이명숙 | ● 7 지구
중무 2구역 김죽은
연지구역 김성규
을지 3구역 김채진
중무 2구역 배애경
초동 1구역 이청자
종로구역 정길자
서대문구역 한문철
을지 1구역 노옥봉
중무 1구역 김기순
흥은 2구역 이승수 |
| ● 2 지구 | ● 4 지구
영동구역 문복례
보광 1구역 안선희
응봉구역 강선희 | ● 6 지구
화곡 3구역 배춘식 | | | |

* 축하합니다 (2 월중 결혼)

- 홍성인군 (홍창표씨 김정은씨 2남)과 김란양 9일
- 최경화양 (전순자권사 딸) 12일
- 장선애양 (문정숙권사 딸) 14일
- 김정훈군 (새신자부지도)와 유희섭양 (고등부지도 최경희권찰 딸) 17일
- 권명상군 (고등부교사 안유향권사 아들)과 유명선양 (강남구역) 19일
- 서용석군 (서정철씨 홍정홍씨 아들)과 이명숙양 (이문구역) 20일
- 김광선군 (약수구역) 21일
- 송정훈군 (송영섭, 백의주집사 2남) 21일
- 정종은군과 오신숙양 (오석부집사, 김순이권사 2녀) 23일
- 이병석군 (유년부교사)과 서귀옥양 24일

- 원용규군 (원봉상씨, 경기숙씨 아들)과 박이선양 (박창순씨, 박영규집사 2녀) 24일
- 황선옥양 (회경구역) 25일
- 김영숙양 (이옥녀권사 딸) 26일
- 권석연양 (서상연권사 딸) 27일
- 우병열군 (송정구역)과 양복희양 (양남구역, 박갑배집사 장녀) 27일
- 김희옥양 (이재춘권사 딸) 28일

* 위로드립니다 (2 월중 별세)

- 오실단씨 (잠실구역) 15일
- 변금동씨 (필동 4구역) 17일
- 강덕봉씨 (반동구역) 17일
- 박성덕씨 (약수 3구역) 20일

한방내과 · 부인과 · 소아과 · 침구과 · 정신신경과

우 기 전 한 의 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익동 202
 (경찰병원입구)
 전 화 : 254-8873



우 기 전 장로

총신교지 용인에 22만평 확보

본 교단의 유일한 목회자 양성기관인 총신대학이 경기도 용인지역에 교지 22만평을 확보함으로써 명실공히 세계적 신학대학원으로서 면모를 부각시켰다.

총신 이사회는 동 교지 확보를 위하여 3억7천만 원을 매입 금액으로 지불했는데, 군산 개복동교회 강정준장로가 5천만 원을 현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단종파관련자 재판회부

기감실행위 결정

기독교 대한감리회(감목회장: 오경린)는 4월 28일 ~ 29일 양일간 특별총회를 열어 장정개정안을 상정하여 심의 처리기로 했으며 특별히 이단종파에 찬동하거나 협조, 또는 이단종파에서 개최하는 집회에 참석하는 목회자들이 있을 경우 이를 재판국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했다.

장년주일학교 교사강습회

28일부터 3일간 대전서

총회교육부(부장: 조해수목사)는 제1회 장년주일학교 교사를 위한 교사강습회를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대전 중앙교회당에서 개최기로 했다.

동 강습회에는 총회산하 주일학교 장년부 교사가 참가 대상이 되며, 강의내용은 성경교수법을 비롯하여 주교 교사론,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 인간심리학, 장년부 교과과정 해설 및 공과공부 등이다.

군목업무 연구발전회의

본 교단 군목들 참석하여

총회 군목부(부장: 실명도 목사)는 본교단 군목들을 전국여전 회관에 회집시켜 3월 26일~28일 까지 군목업무를 위한 연구발전회의를 가졌다.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 동 회의는 김의환 박사가 「선교전략과 군선교 방안」을, 그리고 최동진 목사가 「군선교의 시대적 사명」에 대하여 강의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군목들은 군복음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다짐했다.

장로교협 창립예배

한국장로교 협의회는 지난 4월 5일 서울 새문안교회당에서 창립기념 예배를 드렸다.

동 협의회는 각 장로교단들이 교회설립 1백주년을 맞는 시기에 있어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고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펼친다.

부활절 연합예배 성황

각지역별로 예수부활 찬양

주님의 부활하신 기념 연합예배가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인천지역 등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서울은 5·16광장(여의도)에서 19일 새벽 5시30분부터 진행되었으며, 부산은 같은날 구덕운동장, 대구는 달성공원, 그리고 인천은 공설운동장에서 부활의 기쁨을 찬양했다.

이번 연합예배는 전국의 3백여만 교우들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필리핀에 선교사 파송

총회선교부(부장: 안중섭목사)는 필리핀에 박기호 선교사를 파송하는 예배를 지난 3월25일 대방교회당에서 가졌다.

이날 파송예배는 남서울노회 선교부장 임병준목사 사회로 진행, 안중섭목사의 「망끝까지 전하라」는 말씀이 있었으며, 선교사 파송장이 총회 총무 정봉조 목사에 의해 전달되었다.

박기호선교사는 4월 28일 오후 5시 비행기로 임지인 필리핀으로 떠난다.

제18회 목사장로기도회

5월12일부터 인천 제2교회서

총회가 매년 개최하는 제18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가 금년에는 5월12일부터 15일까지 인천 제2교회당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

동 기도회는 교회·교단 발전을 위해 특별기도하는 연례 행사이다.

백주년기념 출판기획

기독교사회 정기총회

재단법인 대한 기독교사회회는 지난 3월 31일 정기총회를 열어 81년도 총 수입 예산 22억 7천 4백여만 원을 통과시켰다.

성갑식 총무는 보고에서 「앞으로 기독교 각 분야의 양서를 개발하여 문서선교와 기독교 출판 문화의 발전에 더욱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이성근목사

협동목사로 부임

교회는 이성근목사(부산·남부민중앙교회 시무)를 본 교회 협동목사로 모시기로 결정했다.

이성근목사는 그동안 부산의 남부민중앙교회의 당회장으로 시무하셨는데 문서선교의 일을 담당하기 위해 남부민중앙교회의 당회장직을 사임하셨다. 또한 부산의 남부민중앙교회에서는 이성근목사를 문서선교사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성근목사는 지난 1977년 4월에 우리 교회에 부임하시어 장년새신자부 지도, 출판위원회 지도 등으로 수고하시고 당회장 김창인목사의 설교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를 펴 내기도 하시다 1978년 8월에 부산 남부민중앙교회의 당회장으로 가셨었다.

미혼청년을 위해

심방위원회에서 중재키로

1차 대면토록 주선

교회는 혼기를 맞은 남녀 청년의 등록을 받아 중재역할을 해주는 업무를 담당키로 했다.

이는 대교회를 이룩함에 있어 앞날의 남녀일군을 확보하여 불신혼인을 사전에 방지하며, 거짓 결혼이나 사기결혼을 막아 건전한 가정을 위한 올바른 출발을 하게 하도록 본 교회 청년 남녀 간에 자연스런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일을 담당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은 몇년전에 청년부를 중심으로 일어났었지만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시행되지 못했었다. 이번에도 이의 시

행에 생기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모든 업무를 심방위원장 관장하에 심방위원회에서 취급키로 했다. 심방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카드를 보고 쌍방의 가정과 합의하여 본인들을 대면케 하는 일을 하는데 1차 대면 이외의 일은 심방위원회에서 취급하지않기로 했다.

등록카드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학력, 경력, 신력, 가족관계, 친족관계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고 반명함판 사진 1매를 첨부해야 한다.

이처럼 등록키를 원하는 사람은 심방위원회에 준비된 등록용지에 기록하여 제출하면 된다.

교회내 의료인 140여명

의료인 첫 모임

산업전도회 주관으로

산업전도회는(회장: 오배희 장로) 지난 2월 28일 오후 7시 유치부실에서 교회내의 의료인을 위한 모임을 가졌다.

산업전도회에서 조사한 우리 교회내의 의료인은(간호원, 한의사, 의사, 의료관계종사자) 140명 정도가 되는데 첫번 모임에 40여명의 의료인이 모였다.

이날 모임에서 의료인들은 앞으로 매월 1회씩 모여 친목을 도모하며 상호 협조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의료인모임에서 팀을 짜서 각 직장을 순회하며 무료진료를 하고, 교회내의 국민자에게 무료진료의 방안등을 협의하기도 했다.

이번의 이 의료인모임은 동일



직종에 관계하는 직업인이 모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질 수 있고 앞으로도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직업인의 모임이 이번을 기회로 많이 생겨나야 할 것이다. 그래야 직장복음화의 구체적인 전

략등이 나올 수 있고 같은 직종의 직업인의 상호 협조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의료인 모임은 산업 전도회 의료부장 홍중섭장로가 주로 관장하게 된다.



5월은 총동원 전도의 달

교회는 5월 한달을 총동원 전도의 달로 정하고 온 교회가 전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1. 전도의 목표-배가(倍加)

예년에는 6월에 총동원 전도를 실시했으나 금년에는 5월로 당기고 전도의 목표를「배가」에 두어 보다 실제적인 목표아래 총동원 전도를 펼칠 계획이다. 전도위원회가 전체를 주관하여 실시할 본 총동원 전도는 주일학교와 심방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모든 계획이 진행중에 있다.

다니엘 12장 3절「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의 말씀을 주께 성구로 찬송가 544장(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 새)을 주께 찬송으로 하여, 5월을 전도의 열기로 물고 갈 총동원 전도는「배가(倍加)」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도의 표어도 각 구역은「한 구역이 한 구역씩」, 주일학교는「한 학급이 한 학급씩」, 각 가정은「내 가정을 내가 전도」라는 배가의 표어를 정했다. 이번 기회에 온 교회가 배가되는 귀한 일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2. 유형별 전도기간

- 1) 태신자(胎信者)명단 제출: 5월 첫째주
- 2) 가족 총동원 전도: 5월 둘째주
- 3) 구역 및 학급 총동원 전도: 5월 셋째주
- 4) 추적 총동원 전도: 5월 넷째주
- 5) 육성 총동원 전도: 5월 다섯째주

3. 전도 실시 방법

1) 태신자 전도

태신자란 믿음과 기도 가운데 전도하기로 작정한 인도 대상자를 말한다.

① 우선 전 교인이 자신의 태신자를 3인 이상 명단을 작성하여 5월 첫째주(5월 3일)에 보고하고 별도로 작성된 태신자카드를 성경책 속에 보관하여 매일 기도하며 전도하기를 힘쓴다.

② 이렇게 제출된 태신자 명단을 교역자나 구역장, 각 반교사가 정리하여 전도 심방의 근거로 삼게 된다.

③ 구역전도대는 5월 1, 3주 금요일에 교회에서 기도회를 가진 후(오전 10시) 각 구역으로 파송되어 태신자명단에 보고된 자를 인도 결심자와 함께 일제 심방 전도케 된다.

④ 이처럼 일제 심방전도후 반응이 좋은 사람을 구역전도대와 각 반 전도대 인도 결심자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교회로 인도하게 된다.

2) 축호전도

구역전도대가 각 구역내의 적당한 자역을 선정, 기도로 준비한 후 5월 둘째주 금요일에 일제히 가가 호호를 방문하여 구역단위로 실시한다.

3) 학원전도

주일학교 각 부에서 별도 계획을 작성하여 소속된 학교에서 5월 한달동안 집중적으로 전도하게 된다.

4) 노방전도

현재 매주 실시하고 있는 대학, 청년부의 전도대를 보강하여 계속적으로 노방전도를 실시하게 한다.

5) 추적전도

남, 여전도회 및 산업전도회를 중심으로 문서 및 테이프등을 보급하며 미등록 태신자에게 전도한다. 현재하고 있는 부분을 확대, 강화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 (단12:3)

5월 한달동안 전 교우가 참여 전도 전교인·교사·구역요원들에게 전도훈련 각 가정·각 학급·각 구역을 배가

4. 전도훈련

전 교인을 동원한다고 할때 훈련 받은 사람이나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 일을 위해 이미 4월부터 전도훈련을 실시함으로 이번 총동원 전도가 그저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전교인을 대상으로 매 주일 저녁예배 시간을 이용하여 전도를 내용으로 한 설교와 강의를 실시하고 각부 주일학교에서도 4월중 2회를 전도를 내용으로 한 설교를 통하여 전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 자세, 실시등을 강조하여 왔다.

또한 전도대원(주교교사 500명과 구역요원 1,350명)의 훈련을 위해 4월 마지막 주(4월27일~5월1일)를 훈련기간으로 잡고 낮과 저녁으로 전도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훈련기간에 전도대원은 전원 참석해야 할 것이다.(낮반과 저녁반 중 선택)

전도훈련의 내용 및 강사는 다음과 같다.

전도대원 훈련 교과과정

일	시	과 목	시간	강 사
4.27 (월)	오후 7~8시	전도자의 자세 및 사명	1	김창인 목사
	오후 8~9시	배신자 전도란?	1	장정일 목사
4.28 (화)	오전10~12시	전도자료 사용법	2	이양우전도사
	오후 7~9시			
4.30 (목)	오전10~12시	축호전도와 육성	2	김영휘강도사
	오후 7~9시			
5.1 (금)	오전10~12시	반대의견 다루는 법	1	김석원 목사
	오후 7~9시	이교와 이단비판	1	

5. 사후관리

매번 그렇지만 전도후 결신자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공연한 수고를 하게 된다. 금번엔 이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써 주일학교 새신자부와 각 구역을 강화,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각부 주일학교에 구역조직을 두고 새신자에 대한 관리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각 구역에는 구역육성 담당권사를 각 협력구역(46개 협력구역이 있음)에 1명씩 배치하여 새신자 육성을 전담토록 할 방침이다.

6. 6월 첫주-새신자 환영회

6월 첫주에는 5월 한달동안 전도하여 생긴 새신자를 초청하여 저녁예배를 결신자 환영예배로 드릴 계획이다.

7. 우리의 할 일-모두 참여해야

온 교회가 전도로 보낼 5월 한달동안 충천교회 교인이면 어느 누구든 이 대열에서 빠지는 자가 없어야 할 것이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참여하여 전도에 힘쓸 때에「배가」라는 총동원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도를 못해 본 사람일지라도 이번 기회에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그동안에 마음만 갖고 있었던 전도가 이번 기회에 실제 행동으로 전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경험을 갖는 기회가 되었으면 싶다.

이종국 집사

교육위 간사로 임명

교회는 이종국집사(고등부교사)를 그동안 공석으로 있던 교육위원회 간사로 임명했다.

이종국집사는 그동안 고등부교사로 오랫동안 수고해 왔다. 따라서 그동안 공백이 있던 교육위원회 업무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되었다. 이집사는 주일 이외 평일에도 근무하여 일하게 된다.

장년새신자부

학습·세례반 분리키로

교회는 장년새신자부의 학습반·세례반을 분리하여 각 개 독립된 부서로 승격시키기로 했다.

이미 금년부터 장년새신자부는 실제로 부장 1인하에 모든 체제가 분리하여 교육, 행정, 재정등을 운영해 왔다. 보다 발전을 위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케됨으로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는 15개 부서에서 16개 부서로 늘어났다.

각 협력구역에

전담권사 배치키로

교회는 46개 협력구역에 각 협력구역을 전담하여 돌보는 권사를 배치키로 했다. 전담 권사는 각 협력구역원의 상태를 파악하여 특히 새신자의 육성을 위해 힘쓰게 된다.

교회는 협력구역의 전담권사들에게 소정의 지막비를 지급하여 일을 원활히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당회장 김창인 목사

75일간 해외여행

당회장 김창인목사는 오는 6월 22일부터 9월 5일까지 75일간 해외 선교지시찰 및 해외여행을 하실 계획이다. 금번 여행은 제주 및 구라과지역이다.

전 교사에게 식사 제공

교육위원회는 4월 세째 주일부터 주일에 주일학교 전 교사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주일 오후에 봉사하는 교사에게만 식사를 제공했으나 거의 전 교사가 주일 오후까지 남아 봉사와 예배등을 해야 하기에 주교 전교사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충현기도원

81년도 부흥회 시작

충현기도원에서는 1981년도 기도원 부흥회를 지난 4월 6~10일, 제 1회로 열렸다.

기도원 지도 한영철목사가 강사

로 수고하시며 부흥회는 격주로 한 달에 2번 열리게 되는데 제 2회는 4월 20~24일에 열린다.

이 부흥회는 1년 내내 열리는데 7, 8월의 수양회 기간은 모이지 않는다.

홍수정장으로 귀국

우리 교회의 시무장로서 시무하시다가 미국으로 이민가신 홍수정 장로가 잠시 귀국하여 서로 기쁨을 나누었다.

홍수정장로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예배드린 18명중에 한사람으로 계속 교회에서 봉사하시다가 5년전 미국으로 이민가셨었다.

인사이동

1. 교육위원회

가. 주일학교

① 임명

어새부	임화택(남)	임시교사
어새부	오영선(여)	임시교사
어새부	장병호(여)	임시교사
영아부	정필걸(남)	정교사
유치부	전유숙(여)	임시교사
유치부	송영남(여)	임시교사
유년부	김영숙(여)	임시교사
유년부	이영철(남)	임시교사
유년부	김미정(여)	임시교사
유년부	김신자(여)	임시교사
유년부	조증덕(남)	임시교사
유년부	박세효(남)	임시교사
유년부	박점숙(여)	정교사
유년부	이태영(남)	정교사
유년부	김경자(여)	정교사
유년부	윤석산(남)	정교사
유년부	신성자(여)	정교사
초등부	이송희(여)	정교사

초등부	김난희(여)	임시교사
초등부	천혜원(여)	임시교사
중등부	양한주(남)	임시교사
중등부	허연경(남)	임시교사
고등부	유성렬(남)	임시교사
고등부	박명춘(여)	임시교사
대학부	한태원(남)	대학부성 가대지휘
대학부	재은실(여)	대학부성 가대반주
대학부	이인희(여)	임시교사
장년부	이의복(여)	정교사
노년부	김순초(여)	정교사

② 전임

허순이 유치부에서 대학부로

③ 퇴임

어새부	홍인성(여)	정교사
유치부	이부영(여)	임시교사
유치부	박혜영(여)	정교사
초등부	송정집(여)	정교사
초등부	이성희(여)	정교사
초등부	정관석(남)	임시교사
중등부	이승현(남)	임시교사
중등부	최길수(남)	정교사

중등부 서진울(남) 임시교사
 고등부 김희성(남) 정 교 사
 고등부 오준근(남) 임시교사
 고등부 유순원(여) 임시교사
 고등부 김 화(여) 정 교 사
 장세부 유미희(여) 정 교 사
 산교부 최선희(여) 정 교 사

토막소식

*...교회는 부활절연합예배 간판을
 대한극장앞 육교에 설치했다.
 *...전도위원회는 해군본부교회를
 신축하는 일에 현금으로 보조키로
 했다.

*...유치부는 5월 9일 유년부실에
 서 가지는 경로잔치에 참가하여 노
 인들을 위로한다. 또한 12일에는 자
 연학습, 16일에는 반별친교회를 가
 진다.
 *...유년부는 5월 3일 안석렬전도
 사를 강사로 교사특강을 가지며 5
 월 5일에는 반별친교회를 갖는다.
 *...초등부는 5월 5일 반별친교회
 를 가지며 5월 17일에는 서울운동
 장 앞에서 교사노방전도를, 5월 22
 일에는 새가정부실에서 교사기도회
 를 가질 예정이다.
 *...장년새신자부는 세례반을 수료
 한 5명(남2·여3)에게 지난 2월
 15일 세례문답을 하고 세례를 베풀

었다. 이날 김창근목사가 주례를,
 김한홍장로가 배석했다.
 *...청년부는 5월 9일 유년부실에
 서 가지는 경로회에서 노인들을 위
 로하며 5월 4일부터 6일까지 충
 현기도원에서 단기수련회를 갖는다.
 *...장년부는 5월 한달을 전체 학
 생심방의 달로 정했고 5월 24일에는
 성경퀴즈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노년부는 5월 중에 양로원 방
 문을 계획하고 있다.
 *...선교부는 5월 8일부터 10일까
 지 성전들에 중공권 선교지역을 발
 표하며 5월 15일에는 새 성전에서
 교사학생기도회를 가질 계획이다.

충현기도원 안내

각 종 통 계

1981. 3. 1. (매월 첫 주 기준)

〈교통편〉

1. 교회 버스편

•매 주일 저녁예배후
 •매주 수요일배후 9시에 교
 회앞에서 출발

2. 시외버스편

•마장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천·여주방면 완행버스를(20분
 간격) 타고 초월면사무소앞에서
 하차

3. 시내버스편

• 66번, 57번, 239번을 타고
 <성남종합시장 앞에서 하차>하여
 광주행 31번 버스를 타고(광주에
 서 하차) 광주에서 이천 방면행
 완행버스를 타고 <초월면사무소
 앞(대쌍)>에서 하차

〈주소〉

1330-112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

〈전화〉

교환 101번을 거셔서
 광주 초월14번」을 신청

구 분		남	여	계		
예	주일낮	I 부	188	319	총세대수 3,844	
		II 부	439	1,008		
		III 부	431	966		
		IV 부	254	472		
	계	1,312	2,765	4,077		
배	주 일 저 녀	246	503	749	신	교인 남 3,600
	삼 일 저 녀	265	526	791		여 5,220
	계					계 8,820
주	어린이새신자부	17	27	44	급	세례 남 1,964
	영 아 부	133	103	236		여 3,398
	유 치 부	116	136	252		계 5,362
	유 년 부	200	205	405		남 503
	초 등 부	220	215	435		여 414
일	중 등 부	178	186	364	교	계 917
	고 등 부	119	152	271		남 293
	대 학 부	92	84	176		여 383
	청 년 부	82	108	190		계 676
	장년새신자부	56	162	218		남 840
학	장 년 부	26	304	330	현	여 1,026
	노 년 부	37	123	160		계 1,866
	산 업 교 육 부	14	87	101		
	선 교 부	25	53	78		
	새 가 정 부	11	19	30		
합 계		3,149	5,758	8,907		

4월의 행사

- 3 일 정기당회·전체철야기도회
- 5 일 제직회·재정위원회
- 9-10일 학습 세례 문답식
- 10일 세례식
- 12일 성찬식·남전도회 월례회·권사회 월례회
- 13-18일 고난주간
- 19일 부활절·여전도회 월례회·재정위원회
해외복음선교회 실행위원회
- 22일 권사회 철야기도회
- 26일 권찰회·전도위원회·건축위원회

편집하고 나서

*...부활주일을 맞으며 그리스도의 고난·죽음·부활에 관한 것을 생각해 보고 싶었다. 특히 이 그리스도의 고난·죽음·부활이 현대를 사는 오늘에 어떤 의미를 가지며 특히 구체적으로 우리 삶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고 싶었다. 그리스도의 귀한 사역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한번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들을 갖는 것도 귀한 일일 것이다.

*...새성전 건축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그와 함께 어려운 문제도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서로가 일심으로 협력해야만 하는 귀한 때가 되었다. 보다 나

은 새성전 건축을 위하여 해외에서 보고 배운 점을 보고하며 소개하는 글을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도 게재한다. 보다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위해 서로가 아낌없이 힘을 합하는 기회가 되야 할 것이다.

...부산 동일교회 시절부터 우리 교회와 애환을 같이 해 오며 교회를 위하여, 교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오시던 이명달 공로전도사님이 지난 3월 2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제 고 이명달전도사님의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며 그분의 신앙과 봉사들을 생각해 보고자 특집화보를 마련했다. 모두가 고인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의 남은 생의 길도 목표를 향하여 달려 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

* 월간총현 조직*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조현명

편집위원/김하전 윤형철 조선근

김차생 손경수 오택용 김중주

이형수 김정태

월간총현

4월호

제9권제4호

통권 제 87 호

발행인/김창인

편집인/조현명

주간/윤형철

편집부장/이형수

대한예수교총현교회
장로회

1972년 4월30일 창간

1981년 4월19일 발행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

260-3407·3408

*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



〈1981년도 준기성례식 - 학습·세례·입교 문답을 하고 있다〉



〈학습·세례·입교문답을 마치고 4월10일 오후 7시 세례식을 베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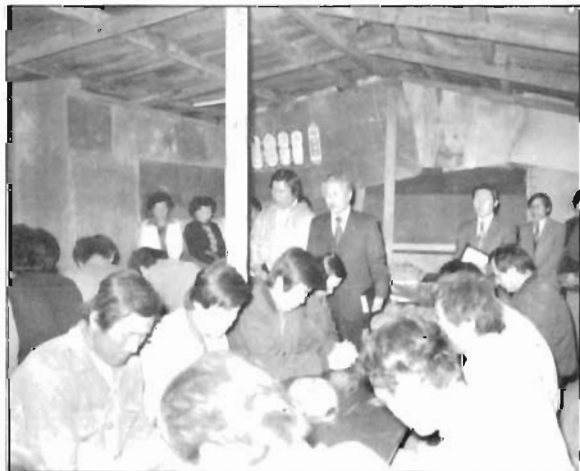
〈금번 세례식에는 특별히 유아 세례자가 예년보다 많았다. 100여명에게 유아세례를 베풀었다〉



〈4월12일 1, 2, 3, 4부 예배시에는 성찬식을 베풀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주일학교 대학부는 지난 4월 4~6일까지 매일 저녁, 문장수목사를 모시고 「속사람의 성장」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지난 4월 8일은 새성전 건축 기공예배를 드리지 만 1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 교회에서는 떡과 과일을 준비하여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수고를 위로했다〉



그는 십자가에 머물러 계셨다오

그들은 예수의 손을 십자가에 못질했고
나무에 달기 위해 발을 못 박았다고.
나는 부르짖는다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 달리셔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수치스럽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병정들이 비웃었다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 오너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말이 진실인 것을 증명하라.”
이처럼 시험 받으셨지만, 그는 그 무서운 십자가에
머물러 기도하셨다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그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구주를 그 무섭고 잔인한 십자가에 머물러 두게 한 것은
못질이 아니라, 당신과 나를 향한 그의 사랑 때문이었다오.
그를 그곳에 머물러 두게 한 것은 못질이 아니라 그의
사랑 때문이었다오. 군중들도 조롱했었으나,
그는 그곳에 머물러 계셨고 갈보리에서 당신과 나를 위해
죽음과 지옥을 정복하셨다오!

유진 L. 클라크

실로암
못가에서